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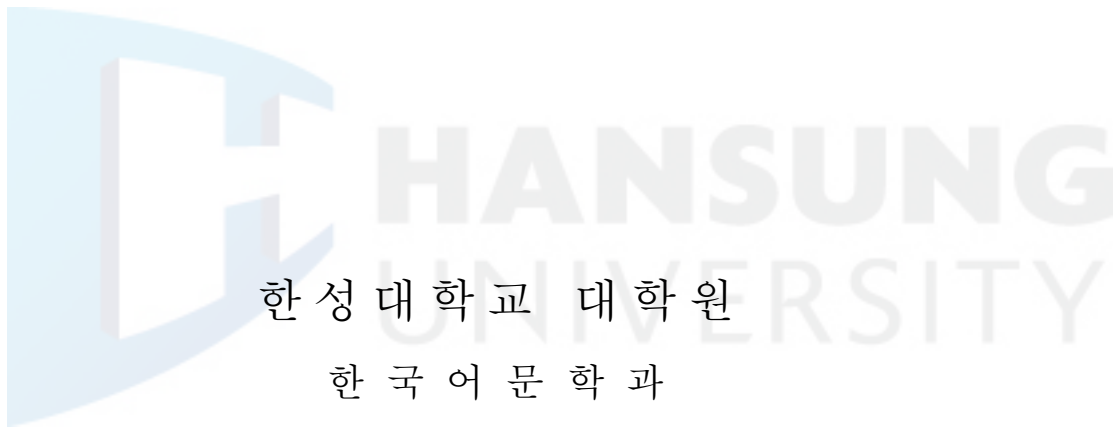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영상매체활용 어휘교육 연구

-EBS '지식채널e'를 중심으로-

2013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한 국 회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정우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영상매체활용 어휘교육 연구

-EBS ‘지식채널e’를 중심으로-

Study on teaching vocabulary
for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with academic purposes
through the visual media

(focusing on EBS Jisik Channel ©)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한국회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정우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영상매체활용 어휘교육 연구

-EBS '지식채널e'를 중심으로-

Study on teaching vocabulary
for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with academic purposes
through the visual media

(focusing on EBS Jisik Channel ©)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한국회

한국회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영상매체활용 어휘교육 연구

-EBS ‘지식채널e’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한 국 회

어휘의 습득은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언어활동이며 모든 단계의 언어 활용에는 그에 맞는 수준의 어휘 학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수학을 할 때 필수적인 학술적 어휘를 습득하도록 하는 효율적 교수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학술적 어휘를 지도하는 효과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학습 자료로 영상매체를 선택하였는데, 음성 나레이션 없이 자막과 음향, 그리고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EBS ‘지식채널e’를 선정하였다.

우선 어휘력의 개념을 살핍으로써 어휘 교육의 목적을 확인하고, 영상 학습 자료인 ‘지식채널e’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2005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방영된 850편의 ‘지식채널e’ 콘텐츠를 분석하여 어휘 학습에 적절한 내용을 골라 선택된 457편을 서술방법에 따라 9가지 구조로 분류하였고, 그 자막을 분석하여 학술 어휘인 사고도구어의 비율을 계산해 내었는데, 그 비율이 9.40%로 일반적학술적 텍스트의 학술적 어휘 포함 비율인 8~10%에 해당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해당 어휘목록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실제 수업 모델 설계에서는 어휘지도를 활용한 5단계 교수법을 제시하였는데, 9가지 서술구조의 콘텐츠들을 갈래형과 확장형 2가지 카테고리로나누어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교수안을 구성하였다.

【주요어】 :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 한국어 어휘 교육, 사고도구어, EBS ‘지식채널e’, 영상 매체 활용, 학술적 어휘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검토	2
1.3. 연구 대상 및 방법	9
II. 어휘 교육과 영상텍스트	11
2.1. 어휘 교육	11
2.1.1. 어휘력의 개념	11
2.1.2.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	13
2.2. EBS ‘지식채널e’ 영상텍스트	16
2.2.1. 영상텍스트로서의 EBS ‘지식채널e’의 특성	18
2.2.1.1. 내용의 신뢰성	18
2.2.1.2. 유형화된 구조	20
2.2.1.3. 학술적 텍스트로서의 적합성	27
2.2.1.4. 자막의 특이성	28
2.2.1.5. 주제의 다양성	28
2.2.1.6. 적절한 분량	29
2.2.1.7. 접근의 용이성	29
2.2.1.8. 높은 호응도로 검증된 보편성	30
2.2.2. EBS ‘지식채널e’ 텍스트의 한국어 어휘교육에서의 효율성	31
2.2.2.1. 적절한 사고도구어 비율	31
2.2.2.2. 무빙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독특한 자막	33
2.2.2.3. OSMU 방식의 텍스트	35
III. EBS ‘지식채널e’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교육의 실제	37
3.1. 어휘교육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	37
3.1.1. 어휘 학습 자료로 적절한 콘텐츠의 선별	37

3.1.2. 어휘 지도(word map)의 활용.....	47
3.1.3. 영상 텍스트 활용 어휘 학습 단계.....	48
3.2. 어휘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50
3.2.1. 확장형 교수·학습 지도안	51
3.2.1.1. 준비 단계.....	53
3.2.1.2. 보기 전단계	54
3.2.1.3. 보기 단계.....	54
3.2.1.4. 보기 후단계	56
3.2.1.5. 다시보기 단계.....	58
3.2.2. 갈래형 교수·학습 지도안.....	58
3.2.2.1. 준비 단계	60
3.2.2.2. 보기 전단계	61
3.2.2.3. 보기 단계	61
3.2.2.4. 보기 후단계.....	63
3.2.2.5. 다시보기 단계	64
IV. 결론	66
【참고 문헌】	68
【부록】	75
1. 활용 가능한 EBS 지식채널 콘텐츠의 서술구조별 분류.....	75
2. 『지식e Season 1~7』 텍스트의 사고도구어 목록	86
ABSTRACT	99

【 표 목 차 】

[표 1] 연구 흐름도	10
[표 2] Knowing a word	12
[표 3] Cummins(1984)의 언어 영역	15
[표 4] EBS ‘지식채널e’ 본론 서술 구조	24
[표 5] 『지식e Season 1~7』 텍스트의 사고도구어 비율	32
[표 6] EBS ‘지식채널e’의 타이틀별 분류	38
[표 7] 유현정(2011)의 한국어교육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선정기준	42
[표 8] 한국어 교육 영상텍스트로 활용 가능한 EBS ‘지식채널e’ 콘텐츠	43
[표 9] 한국어 교육 영상텍스트로 활용 가능한 EBS ‘지식채널e’ 콘텐츠의 서술 구조별 분류	44
[표 10] 한국어 교육 영상텍스트로 활용 가능한 EBS ‘지식채널e’ 콘텐츠의 서술 구조 카테고리별 분류	46
[표 11] 한선(2007)의 영상 매체를 활용한 문화교육의 4단계	49
[표 12] EBS ‘지식채널e’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어휘 수업의 5단계	49
[표 13] EBS ‘지식채널e’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어휘 수업의 5단계 학습활동	49
[표 14] EBS ‘지식채널e’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개괄적 교수안	50
[표 15] “신분증을 보여 주십시오”의 서술구조 도식	53
[표 16] “아주 작은 알갱이”의 서술구조 도식	60
[표 17] “아주 작은 알갱이”의 내용 순서도	64

【 그림 목 차 】

< 그림 1 > “Chaebol” 화면캡처 1.....	20
< 그림 2 > “아주 작은 알갱이” 화면캡처 1.....	21
< 그림 3 > “1초” 화면캡처.....	22
< 그림 4 > “Chaebol” 화면캡처 2.....	26
< 그림 5 > “Chaebol” 화면캡처 3.....	27
< 그림 6 > 말샘41을 이용한 형태소 분석 모습.....	32
< 그림 7 > “아주 작은 알갱이” 화면캡처 2.....	33
< 그림 8 > 『지식e Season 7』.....	36
< 그림 9 > “1초” 어휘지도 활동지.....	48
< 그림 10 > “신분증을 보여 주십시오” 화면캡처 1.....	55
< 그림 11 > “신분증을 보여 주십시오” 화면캡처 2.....	56
< 그림 12 > “신분증을 보여 주십시오” 화면캡처 3.....	57
< 그림 13 > “신분증을 보여 주십시오” 어휘 지도 활동지.....	58
< 그림 14 > “아주 작은 알갱이” 화면캡처 3.....	61
< 그림 15 > “아주 작은 알갱이” 화면캡처 4.....	63
< 그림 16 > “아주 작은 알갱이” 어휘 지도 1 활동지.....	64
< 그림 17 > “아주 작은 알갱이” 어휘 지도 2 활동지.....	65

I.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수학을 하는 데 필수적인 학술적 어휘를 효율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어휘 교수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어휘는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이의 습득이 모든 언어활동의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가장 명백한 언어 지식은 어휘이다.¹⁾ 최근 한국어를 공부하는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무엇보다도 힘겨워하는 부분이 어휘의 습득이라는 통계²⁾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학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학문목적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을 위한 의사소통용 어휘 습득에서 나아가 논리적, 분석적, 종합적 내용으로 이루어진 학술적 텍스트를 이해해야하고,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데 필요한 학술 어휘 습득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위한 교수 방법과 교수 내용의 정립이 시급하다.

교수 방법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는 학습 자료의 다양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본고에서는 영상 매체를 활용한 학문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어휘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러한 정보의 통로인 여러 매체들을 교육과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매체들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교육 내용에 영향을 주며 전달의 대상인 정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어, “디지털 언어로 번역될 수 없는 지식

1) Don Miller(2011;32)는 Nation(2006)의 개념을 사용하여 “Among these challenges, perhaps most obvious is the lexical knowledge learners must develop.”라고 말하고 있다.

2) 조현용(2008)에 따르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중 한국어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56%가 어휘, 23%가 문법, 21%가 발음을, 의사소통시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50%가 어휘, 25%가 문법, 25%가 발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은 정보로서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임종수, 2007:6)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언어 교육이 언어활동을 유연하게 하는 일차적인 목적을 벗어나 매체 문식성 습득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고는 학습자들이 학술적 어휘를 습득함에 있어 기존의 인쇄매체를 통한 학습법보다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수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³⁾, 학문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어휘교육에 영상 자료인 EBS ‘지식채널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제 교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EBS ‘지식채널e’는 감성 다큐멘터리를 표방한 지식 콘텐츠⁴⁾로, 그 주제와 소재에 제한이 없고, 문화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시의성 있고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통념과 반전을 넘나들며 흥미롭게 표현해낸 영상 자료이다. 그 교육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평가받고 있어 포털 사이트인 다음(Daum)에는 이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인 ‘지식채널e 연구회 (cafe.daum.net/dahamgge-e)’라는 카페가 있어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다음(Daum)에서도 자체적으로 ‘EBS 지식’(ebs.daum.net)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콘텐츠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놓고 있다.

특히 음성 나레이션이 없는 자막의 제시 방식이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학습에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과의 접목을 시도해보자 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
- 3) 하채현(2011)은 영상매체가 인쇄매체에 비해 더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영상이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기 때문” 혹은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가 다양하고 몰입할 수 있기 때문”, 그리고 “영상을 직접 볼 수 있고 더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고, 김경숙·라혜민(2011)도 요즘의 신세대 한국어 학습자들은 기존의 문자세대와 달리 새로운 매체에 익숙한 영상세대들로, 다양한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고급 과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접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 결과, 언어 학습과 문화학습에도 크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 4) 김정우(2010)는 “콘텐츠란 ‘미디어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창작된 것들의 총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는 ‘재미를 전달한다’는 콘텐츠의 본질적 기능이 적절한 선별의 과정을 거친다면 교육적 자료로 적절할 것이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영상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어휘 교육에 적합한 영상 매체를 찾아 본 결과 그 내용과 형식, 접근성과 분량 면에서 EBS ‘지식채널e’가 매우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를 활용한 학습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고, 더구나 한국어 어휘 교육에 ‘지식채널e’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선행 연구는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과 ‘영상 텍스트를 활용한 언어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 부분에서는 교육용 어휘의 목록 선정과 어휘 교육 관련 분야를 분류하여 확인 하였다.

우선 ‘교육용 어휘의 목록 선정’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김유미·강현화(2008)의 한국어·문학, 경영학, 컴퓨터 공학 전공을 대상으로 한 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가 있다. 연구자들은 여러 세부 영역 중 어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전공 영역별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학술 전문 어휘를 선정하였는데,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 개발과 어휘목록 자료 구축 및 교육, 그리고 평가 자료 개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라고 자평하였다.

한영균(2007)은 한국어 교육에 있어 교육·학습의 대상(내용)의 결정에 관한 논의를 어휘 교육에 확대시켜 그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리하고, 코퍼스의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어휘 통계정보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긴요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교육 관련 논문에 등장하는 어휘를 대상으로 교육 어휘 목록을 선정한 이유경(2005)의 연구는 특히 명사 어휘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데, 일반 목적 한국어 어휘와는 구별되는 학문 목적을 위한 어휘 목록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유경(2011)에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의미 빈도 사전을 분석하여 어휘의 의미 빈도상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어휘 의미 등급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김지영(2004)은 학습자들의 어휘 사용 오류 분석을 통해 어휘 교육 항목을 추출하여 한국어 어휘 교육 항목을 제안하였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러

한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신명선(2004)은 5개 분야 관련 텍스트의 3,600,000개 이상의 어절로부터 926개의 단어족을 사고도구어로 선정하였다. 그는 이 연구의 의의로 첫째, 사고도구어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이 단어들이 어휘 교육에서 갖는 의미를 제시하였고, 둘째, 교육용 사고도구어를 선정한 최초의 작업이며, 셋째, 사고도구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어휘 차원과 텍스트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넷째, 현 어휘 교육의 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였으며, 다섯째, 사고도구어의 교육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객관적 어휘 계량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문어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사고도구어를 선정 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교육용 학술도구어를 선정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한국어 교육 분야가 아닌 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점은 아직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연구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시사해 준다.

김미소(2010)는 신명선(2004)의 사고도구어를 등급별로 표준화하는 연구를 하였는데, 사용된 한국어 교재가 3종 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그 신뢰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국어 교육에 사고도구어를 도입한 어휘등급 표준화를 시도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교육용 어휘 목록 선정’에 관한 연구들은 국어교육에서 시작된 어휘 목록 선정의 논의가 한국어 교육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국어 교육으로부터 독립된 한국어 교육에서의 독자적이고 폭넓은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어휘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유경(2009)은 최근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 연구의 경향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그 결과로 알 수 있는 외국어 교육 연구의 특징들이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제시하였다. 그는 그 적용 방안으로 첫째, 어휘의 계열적 관계를 활용한 교육, 둘째, 어휘의 결합적 관계를 활용한 교육, 셋째, 어휘의 복합적 관계를 활용한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기연(2009)은 어휘의 통사적 관점의 교육이 어휘 교육 차원에서 갖는 의의와 국어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하겠다고 목적을 밝힌 그의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어휘 교육이 담당해야 할 영역은 의사소통 기능의 신장 외에 문화적 문식력이나 사고력 신장 차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과 언어 능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이정민·김영주(2010)는 어휘 지식의 깊이를 어휘력이라고 정의하고 이것과 언어 능력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어휘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세부영역이 읽기 능력이며 가장 관계가 먼 영역은 어휘·문법 영역임을 실험을 통해 밝혀내었고, 이를 근거로 이정민(2010)에서는 Read(1993, 2000)의 WAT(Word Associates Test)를 참고하여 ‘한국어 어휘력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는 실험을 통한 평가 후 어휘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효과적인 어휘 학습 전략 유형 6개를 추출하였는데 이는 첫째, 단어의 접사나 어근이 있는지 찾아본다, 둘째, 단어들을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시켜 공부한다, 셋째, 단어를 주제나 품사별로 묶어서 기억한다, 넷째, 그 단어로 예문을 만들어 문장을 기억한다, 다섯째, 공부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여섯째, 수업 외에 영화, 책, 가요 등에서 단어를 공부한다 등이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어휘력과 언어 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피고 한국어 어휘력 평가도구를 개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어 어휘력 평가 구인에 대한 이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어 어휘력 평가도구의 구인 타당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연구자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

나은미(2008)는 모국어 사용자들이 유추를 이용하여 스스로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유추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 어휘군을 교육할 때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표현 어휘군을 중급단계에서 먼저 습득하게 한 후 습득한 어휘들의 구조적 유사성에서 유추하여 좀 더 쉽게 수용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신윤경(2010)은 어떤 내용의 텍스트이든지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어휘’라는 사실을 전제로 어휘의 ‘문화 배경지식’ 스키마를 제공하고 활성화시

키는 수업 안에 대해 논의 하였는데, 그 방법으로 어휘의 명시적 교수방안의 활동 예시로 ‘읽기 전’단계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Dalton, Bridget과 Grisham, Dana L.(2011)은 어휘 학습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실제적인 방법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⁵⁾ 첫째, 텍스트 안에서의 어휘들의 관계를 시각적 자료를 통해 배우게 할 것, 둘째, 실제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어휘를 배우게 할 것, 셋째, 온라인 게임을 활용하여 흥미롭게 어휘를 배우게 할 것, 넷째, 학습한 어휘를 활용한 표현하는 기회를 줄 때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할 것, 다섯째, 시소러스등을 활용한 인터넷 상의 어휘 학습 사이트를 활용할 것, 여섯째, 모르는 어휘가 나오는 즉시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사전을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것, 일곱째, 수업 중 인터넷 번역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여덟째, 무겁고, 참고자료를 찾아보기도 힘든 종이 책보다 시간과 노력에 대비하여 더 많은 양의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디지털 텍스트를 활용할 것, 아홉째, 오디오 북등을 이용하여 듣기와 결합된 어휘 학습을 하도록 할 것, 열 번째, 어휘 학습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그것이다. 이 내용은 영어 어휘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매체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특히 이 연구에서 소개한 시소러스 관련 사이트인 The Visual Thesaurus website (www.visualthesaurus.com)는 한국어 교육에도 적용이 가능해 보이는 흥미로운 내용을 탑재하고 있다.

5) Dalton, Bridget; Grisham, Dana L.(2011:308-315) 의 내용 중

eVoc Strategies 1: Learn from visual displays of word relationships within text.

eVoc Strategies 2: Take a digital vocabulary field trip.

eVoc Strategies 3: Connect fun and learning with online vocabulary games.

eVoc Strategies 4: Have students use Media to express vocabulary knowledge.

eVoc Strategies 5: Take advantage of online word reference tools that are also teaching tools.

eVoc Strategies 6: Support reading and word learning with just-in-time vocabulary reference support.

eVoc Strategies 7: Use language translators to provide just-in-time help for ELs.

eVoc Strategies 8: Increase reading volume by reading digital text.

eVoc Strategies 9: Increase reading volume by listening to digital text with a text-to-speech tool and audio books.

eVoc Strategies 10: Combine vocabulary learning and social service.

를 번역하여 인용하였음.

이상과 같이 어휘 교육 관련 연구에서도 영어 교육 분야의 교육 이론과 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많아 이를 한국어 교육에 적절히 접목시키고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독자적으로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와 이론 개발을 이루어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영상 텍스트를 활용한 언어 교육’ 분야의 연구로는 ‘지식채널e’ 읽기를 중심으로 영상 텍스트 비판적 읽기 지도를 시도한 윤영미(2009)의 연구가 있다. 그는 ‘지식채널e’ 텍스트를 광고와 뉴스 텍스트보다 상대적으로 제작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중립적 텍스트로 보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판적 읽기 교육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문자 텍스트 읽기 지도와는 다르게 가치 생성 과정을 구체화 시킬 수 있었으며 학생들 스스로 비판적 읽기 절차에 맞게 일정 수준 읽기의 과정을 수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반응도 긍정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어 교육에 ‘지식채널e’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로 한국어 교육과는 대상자가 상이하여 그 결과를 한국어 교육에 그대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경숙·라혜민(2011)은 대중매체 중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영상 매체중의 하나가 뮤직비디오라고 판단하고, 이런 뮤직비디오를 이용하여 한국어·문화교육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실제 수업 단계에서 뮤직비디오⁶⁾를 2회 보여주고 전체적인 느낌을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한 후 각 장면별로 나누어 어휘와 문법 요소를 확인하고 말하기 쓰기 활동을 연결 지어 교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제 수업을 실시한 후 학습자들의 반응이 매우 만족스러웠고 더 다양한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수업을 희망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고무적이다. 다만 많은 뮤직비디오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경애(2011)는 영화 『친구』를 활용하여 토론식 학습법을 원용한 영상 텍스트의 읽기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학습자들이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영상물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관련 과목들을 통해 미디어물을 비

6)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노래:김경호)”를 선정, 활용하였다.

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영상 매체의 특성에 알맞을 뿐 아니라 학습자의 참여와 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사가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제시한 수업 모형에서 장면 읽기, 심층적 의미 읽어내기, 사회적·문화적 맥락 읽기의 단계로 수업을 전개하고 읽기의 수준별로 토론식 학습법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는 데에 까지 나아가게 하고자 시도하였다.

신혜원·김은아·김은영(2006)은 TV 드라마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는데, MBC와 DVD 개발업체, 서울대 한국어 교육센터와 공동 개발한 일본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용 DVD인 「ENJOY 한국어(韓國語)」을 통한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이용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동시에 언어와 문화, 언어 기능간의 통합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어 교육 방법을 시도하였다. 「ENJOY 한국어(韓國語)」는 국내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여 드라마를 이용해 제작한 교육 자료로 그 개발과 적용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H.G. Guillory(1998)는 영상자막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불어 학습자 대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6주간 실험을 하였다. 무작위로 형성된 세 집단의 학생들에게 Full Text 자막의 영상, Keyword 로 이루어진 자막의 영상, 자막이 없는 영상을 각각 보여준 결과 Keyword 로 이루어진 자막의 영상을 본 학생들의 이해력이 Full Text 자막의 영상을 본 학생들에 비해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Keyword 로 압축된 자막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이해에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로 본 연구의 영상 자막을 활용한 어휘 교육과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Kasper 와 Singer(2001)는 대화가 없는 무성 영화를 활용한 ELS 수업에서 D.W. Griffith 의 *The Painted Lady*(1912)라는 영화를 영상 매체로 선택하여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언어와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수업의 진행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영상과 음악만으로 이야기를 서술해나가는 것이 좋았어요. 모든 등장인물들이 너무 말

을 빨리하는 TV 쇼 보다 훨씬 이해가 쉬웠습니다”⁷⁾라는 한 학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음성 대화 없는 영상이 그저 소리 없는 조용한 영상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의사 소통법을 알려주는 적절한 영상 매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어 교육에서나 한국어 교육,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등 언어 교육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영상 매체들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최근 들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중 문식성 교육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다중 매체에 익숙한 세대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한국어 교육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교육을 위해 ‘지식채널e’ 프로그램을 영상 텍스트로 선정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에 적절한 콘텐츠를 선별, 그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교수 방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자막과 해설의 홍수 속에서 절제된 텍스트와 편집의 묘미로 메시지의 효과를 최대화 시키고 활용”(오진곤·조은희,2009:66)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EBS ‘지식채널e’ 프로그램은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7년 넘게 방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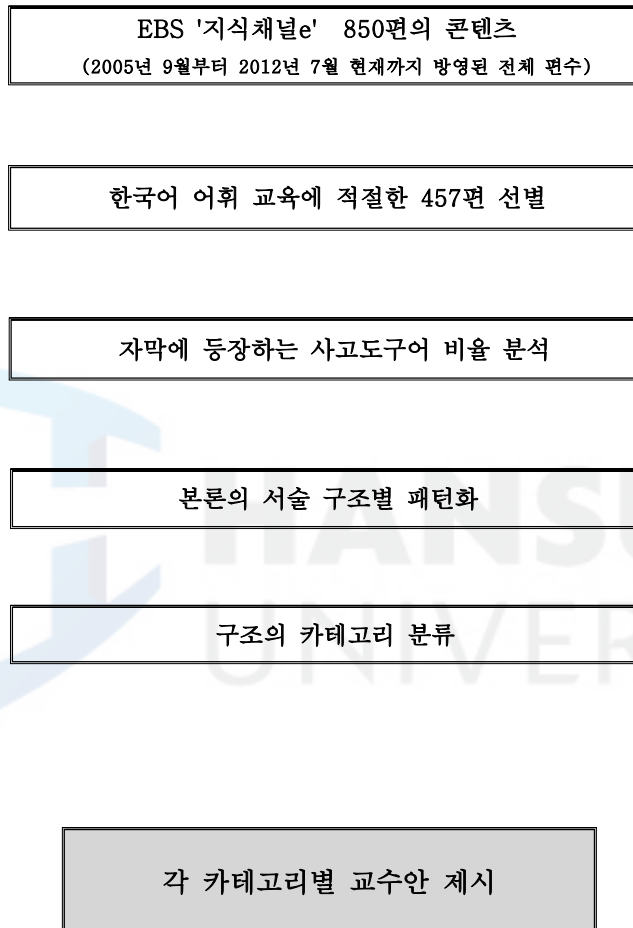
현재 한국어 어휘 교육에 ‘지식채널e’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찾아보기 힘든데, 따라서 그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본고의 일차적인 연구 내용이 될 것이다. 이는 영상 텍스트로서의 ‘지식채널e’의 자막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분석이 있기 전에 ‘지식채널e’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특징과 한국어 교육 영상 텍스트로 활용되었을 때의 장점들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는 ‘지식채널e’ 프

7) “I like the way the pictures told the story, along with the music.....it was easier for me to follow than a lot of TV shows where everybody talks so fast.....”

로그래 중 한국어 어휘교육에 적합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타이틀을 분류해 내려한다.

그리고 수업에 활용할 몇 편을 서술구조의 카테고리 별로 선별하여 그 자막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를 활용한 실제 수업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의 개략적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1] 연구 흐름도



Ⅱ. 어휘 교육과 영상텍스트

2.1. 어휘 교육

2.1.1 어휘력의 개념

이제까지의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어휘력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자면, 손영애(1992)는 개개인의 단어들에 대한 형태, 의미, 화용에 관련되는 지식의 총체로, 이영숙(1996)은 어휘에 대한 지식으로, 이충우(2001)는 어휘에 대한 총체적 지식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며, Cook(2001)은 어휘의 구두적 혹은 작문적 형식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문법적 구조 및 어휘들의 여러 가지 측면이 알맞게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지식으로, Thornbury(2002)는 어휘의 문법적 기능, 문화적 의미 및 함축된 의미를 의사소통에서 적절히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Read(1993)는 어휘지식의 깊이로 이해하였다. (이도영,2011, 이정민·김영주,2010 재인용)

하성욱(2008)은 어휘력이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의미 능력(sense ability)이라는 말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단어, 구, 절, 문단, 텍스트에서 어떤 표현을 해석하거나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김광해(1997)는 ‘어휘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관련된 일체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고, 신명선(2006)은 “어휘 능력(어휘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상징 능력(인지적 측면)과 지시 능력(수행적 측면)을 분리하고 있는데, 이는 Nation(1990)이 어휘 능력을 receptive knowledge(수용 능력)와 productive knowledge(생산 능력)로 나누어 생각한 것과 일맥상통 한다.

[표2] Knowing a word

Form	Spoken form	R	What does the word sound like?
		P	How is the word pronounced?
	Written form	R	What does the word look like?
		P	How is the word written and spelled?
Position	Grammatical patterns	R	In what patterns does the word occur?
		P	In what patterns must we use the word?
	Collocation	R	What words or types of words can be expected before or after the word?
		P	What words or types of words must we use with this word?
Function	Frequency	R	How common is the word?
		P	How often should the word be used?
	Appropriateness	R	Where would we expect to meet this word?
		P	Where can this word be used?
Meaning	Concept	R	What does the word mean?
		P	What word should be used to express this meaning?
	Associations	R	What other words does this word make us think of?
		P	What other words could we use instead of this one?

(R = receptive, P = productive)

위 표에서와 같이 Nation(1990)은 단어를 안다는 것을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해석하였고, 각각의 항목을 다시 2개의 항목으로, 또 다시 각각 수용과 생산의 능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어휘의 학습은 그 단계나 목적에 관련 없이 위 분류에 따른 4가지 항목의 지식에 의해서 습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합당한 텍스트로서 ‘지식채널e’ 프로그램을 선정한 이유와 그 효율성은 차후 3장에서 논의 될 것이다.

이상 살펴본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어휘력이란 어휘의 의미를 안다는 것과 그 지식을 언어활동에 활용한다는 것이 결합된 개념의 능력을 지칭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력을 “어휘의 의미와 사용에 대한 이해력”이라고 정의 하겠다.

여기서 ‘어휘의 의미’란 어휘 본연의 뜻을 일컬으며,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단어의 정확한 이해와 사전적 의미를 배제하지 않는 학습을 지칭한다. 또한 ‘어휘의 사용’이란 맥락 속에서의 통합적 어휘 사용 능력을 말하며 그 기능과 문법적 적합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어휘의 화용적 측면에 못지않게 그 의미 자체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중요시한다는 의도가 포함된 정의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학술도구어에 대한 논의와도 맞닿아있다.

2.1.2.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

최근 국내 교육 기관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⁸⁾ 그에 따라 유학생 선발과 입학 후 수학 능력을 예측하기 위한 평가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성을 넘어서는 학술적 목적의 고급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러한 학술 목적 언어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학술적인 도구로서의 어휘를 학술도구어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영어권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Dresher(1934)가 일상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여러 학술 텍스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아낸 이후, Higgins(1966)는 학술 텍스트의 큰 틀이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고 이 어휘들을 ‘Frame Words’라고 명명했다.(신명선,2004 재인용)

Nation(1990)는 학술텍스트에 8%가량 등장하여 학문목적을 이루는 데 반드시 알아야하는 어휘를 Academic Vocabulary로 명명하였고, 그 이후 학술도구어라는 Academic Word Lists (AWL)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Coxhead(2000)에 의해서인데 그는 4개 분야 28개 전공 관련 텍스트에서 3,500,000개 이상의 단어를 대상으로 570개 단어족을 선정하여 이를 Academic Word Lists 라고 발표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AWL은 각

8) 한국교육개발원(2010)의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00년에 3,963명이던 유학생이 2010년 현재 83,842으로 급증하였다. 양길석(2012)에서 재인용

전공분야 서적의 8~1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학술텍스트를 읽어 내는 데는 필수적인 어휘이다. 이는 발표한지 10년 이상 흐른 지금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연구되고 있어 그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어에서 학술 어휘에 대한 논의는 어휘를 1차 어휘와 2차 어휘로 구분한 뒤 2차 어휘를 학술어로 분류한 김광해(1997)의 연구와, 학습자들의 어휘 사용 오류 분석을 통해 어휘 교육 항목을 추출하여 한국어 어휘 교육 항목을 제안한 김지영(2004)의 연구, 학술적 어휘를 ‘사고도구어’라 명명하고 926개의 단어족을 분류해낸 신명선(2004), 그리고 학술 전문 어휘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주요 전공별 목록을 선정한 김유미·강현화(2008)등 이 있으나, 아직은 그 연구가 확립단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본고에서는 학술도구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선정까지 완료해낸 신명선(2004)의 ‘사고도구어’를 학술적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서의 한국어 어휘로 인정하고 이제부터의 학술적 어휘와 관련된 논의와 분석에 ‘사고도구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겠다.

신명선(2004)은 그 연구에서 5개 분야 관련 텍스트의 3,600,000개 이상의 어절로부터 926개의 단어족을 사고도구어로 선정하였다. 이는 Coxhead(2000)의 AWL와 비슷한 규모의 코퍼스의 크기로, 다양성과 규모 면에서 그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AWL에 필적한다 할 수 있겠다. 물론 영어의 단어와 우리말의 어절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말의 조사가 사고도구어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같은 수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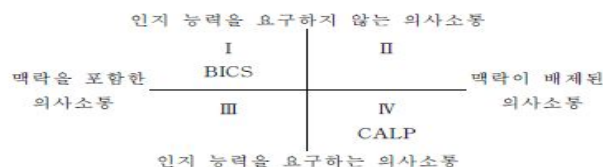
이러한 사고도구어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학술 텍스트의 1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⁹⁾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수학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어휘들이다.

아래 [표3]에서 보듯이(신명선,2004 재인용) Cummins(1984)가 제시한 언어 영역중 BICS는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의 약자로 ‘기본적 의사소통 언어능력’을 의미하고, CALP는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의 약자로 ‘인지 및 학문적 언어 능력’을 의미한다.

9) Coxhead(2011:357), “Note that the coverage figures of AWL over the various university-level corpora are consistently around 10%.”

학문적 토론, 발표, 분석 능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CALP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학술적 어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¹⁰⁾ 상황 맥락에서 추출한 어휘의 의미와 사용 규칙에 교육이 치우치다 보면 정확한 의미 파악이 필요한 CALP 영역의 사고도구어의 활용이 쉽지 않게 된다.

[표3] Cummins(1984)의 언어 영역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술적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도구어를 적절히 교육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어휘 교육에 앞서 탈문맥화된 어휘의 제시로 맥락이 배제된 어휘 본연의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문맥 속에서의 어휘의 화용을 학습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도입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통합적 어휘 관계 활용성은 문맥을 보여주는 덩어리의 학습을 통해 어휘 관계에 대한 귀납적 지식을 얻게 하자는 주장인데, 기존의 교실 현장에서 교사나 학습자가 문맥에서 단어를 분리하여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단어의 사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것을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2005:98-99)

그러나 신명선(2004)의 논의에 따르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학에서 마주치게 될, 수없이 많은 학술 텍스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고도구어, 즉 학술도구어의 경우 어휘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어휘 이해가 읽기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부차적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Cowen & Glasman & Rosenbaum-Cohen & Ferrara & Fine(1998),

10) 신명선(2004)은 “사고도구어는 CALP신장을 위한 학문적 기본어휘”라고 하였다.

Anderson(1980), Cunningham and Moore(1993)에 의하면 많은 학생들이 전문어보다 사고도구어를 더 모르며 Nation(2001:189)은 그 이유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 대부분 내용에 치중하여 전문어를 익히는 데에만 대다수의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 Coxhead(2000:226-229)는 결과적으로 사고도구어가 전문어만큼도 학습자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고 있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신명선,2004 재인용)

위의 주장들이 국어 학습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신명선(2004)에서는 ‘개념, 구조, 기능, 요소, 요건, 속성, 조건, 구조, 체계, 분석하다, 분류하다, 구별하다, 분별하다, 실증하다’ 등의 사고도구어를 이용하여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그 결과 학술적 내용을 조직하고 정리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사고도구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했으며 학생들 스스로도 그런 어휘에 대해 무관심하고 ‘대충’ 아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 학술텍스트를 많이 접하게 되는 대학, 대학원에서의 수학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도 사고도구어의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학문적 학습에 필수적인 어휘들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 텍스트 선정에서부터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2.2. EBS ‘지식채널e’ 영상텍스트

EBS ‘지식채널e’는 2005년 9월 5일 “1초”라는 타이틀로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2012년 7월 현재까지 850 여 편의 영상 다큐멘터리로 계속 방영되고 있는 지식 콘텐츠이다.

EBS는 전 국민의 교양과 교육을 위한 공영 교육방송이라기보다는 ‘수능’을 위한 교육방송으로 고착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캐나다의 ‘Matters’라는 프로그램에서 힌트를 얻어 SB(Station Break)¹¹⁾ 형식의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영주·김진혁,2009:53)

그 홈페이지에서 밝힌 제작의도에 따르면 ‘지식채널e’은 그 자체가 각각 하나의 “메시지”임을 표방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메시지”는 단순한 “내용”으로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식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있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¹²⁾ 결국 EBS ‘지식채널e’의 로고인 ‘감성 지식 채널’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감성이 개입된 지식을 내용으로 삼아 기계적인 객관성을 전면에서 내세운 여타의 기존 다큐멘터리와는 그 궤를 달리하는 콘텐츠라 할 수 있겠다.

교육방송의 교육(Education)을 뜻하는 e라는 문자가 들어간 키워드 하에 다양하게 분류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타이틀별 분류>¹³⁾

정체성(identity) 지구(earth) 90분 (2006 독일월드컵) 건강(health)
경제(economy) 공간(space) 과학(science) 관계(relation) 교육
(education) 기술(technology) 기억(memory) 돈(money) 문학
(literature) 문화(culture) 뮤직비디오(music video) 민주주의
(democracy) 사람(people) 사회(society) 삶(live) 상상(imagine)
생존(survive) 수학(mathematic) 어린이(children) 언론(media) 여
행(travel) 영웅(hero) 영화(cinema) 예고편(preview) 이야기e야기
인간(humane) 인생(life) 인터뷰(interview) 자연(nature) 지식
(knowledge) 진실(true) 캐릭터(character) 환경(environment) 희
망(hope) 정서(emotion) beyond 게스트(guest) 꿈(dream)

타이틀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여 영상을 다시 보고자하는 시청자들을 위한 분류의 제공으로 보일 뿐 사실상 주제의 제한이나 경계는 없다.

또 다른 검색의 키워드인 내용별 분류를 살펴도 큰 차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11)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자체 광고나 공지사항을 뜻함.(DAUM 인터넷 영어 사전 참고)

12) <http://home.ebs.co.kr/jisike/main.jsp> 참조

13) 위의 사이트

<내용별 분류>¹⁴⁾

가족/공동체 가치관/관점 건강/보건 경제 과학(기술) 과학(기타)
관계/소통 교육 국내 국제 꿈/희망 노동 노력/극복 다양성
동,식물/자연 레저/여가 리더십 문학 문화/예술 문화/풍습 미
디어 발상의 전환 봉사/나눔 사랑/우정 사회/시사 산업화 소
외/편견 스페셜 스포츠 시간/기억 시리즈 심리 어린이 여성
역사 우주/지구 인간/삶 인권 인물 인체 재미/오락 정치/제
도 지식/정보 철학 화해/평화 환경 생활

제작의도로 다시 돌아가 ‘지식채널e’ 프로그램의 성격을 살펴보자면 이
채 5분도 안 되는 특이한 형식의 다큐멘터리는 설득이나 계몽의 의도는
전혀 없는 듯 보인다.

“최대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지고 시청자가 나름대로의 메
시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프로그램의 목적을 두었다”¹⁵⁾는
말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입각한 영상 텍스트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식채널e’는 일찍이 마셜 맥루한이 핫 미디어에 대응하
여 쿨 미디어라고 분류한 TV의 특성을 매우 잘 활용한 콘텐츠이다.

2.2.1. 영상텍스트로서의 EBS‘지식채널e’의 특성

2.2.1.1. 내용의 신뢰성(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성)

EBS 방송국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연혁에서 다음과 같이 그 시작과 현황
을 설명하고 있다.

14) <http://home.ebs.co.kr/jisike/main.jsp>

15) 위의 사이트

<기반구축기>

독립적인 교육채널인 KBS 제3TV(UHF)와 KBS 교육라디오(FM)가 신설되면서 방송을 통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의 방송본부는 학교프로그램의 연구, 기획 및 제작을 전담하였으며 송출은 KBS의 시설을 이용하였다.

<성장발전기>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이 KBS로부터 분리되어 TV와 라디오 각각 하나의 채널을 운영하는 교육전문 전국 네트워크 방송국 EBS로 정식 출범한다. 이때부터 EBS는 학교수업을 보충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일반교양 프로그램까지 기획, 제작하게 된다. 이어,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거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완전 분리 되어 편성, 인사, 재정의 자율권이 확보된 독립적인 방송기관으로 발전한다. 또한 디지털 방식에 의한 위성 교육방송을 시작함으로써 난시청을 완전히 해소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서비스한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전문 전국 네트워크 방송국으로 개원한 이래 학교수업을 보충하는 교육 방송국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 중 하나가 학습 자료의 선택일 것이다. 그 자료가 학습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자료의 형식이나 내용, 또 논리적 근거나 출처 등이 믿을 만하고 수업에 적합한가를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판별해 내야한다면 그에 수업연구에 못지않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다양하고 새로운 학습 자료를 활용한 변화하는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식채널e’는 교사들이 활용하기에 적절한 영상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을 선도하는¹⁷⁾ 공영 교육방송에서 제작한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16) <http://about.ebs.co.kr/kor/organization/history> 참조

17) EBS 방송강령 참조

2.2.1.2. 유형화된 구조

‘지식채널e’는 이제까지 850 편이 넘는 내용이 제작되었고, 각 편마다 구성이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도입 - 타이틀 제시 - 본문 - 객관적 진술 첨부 - 참고자료 제시>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분은 시청자의 관심을 환기 시키고 대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노출시키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5분이 채 안되는 짧은 길이로 본문만을 이야기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심의 흡입정도가 강력하다.

2010년 11월 8일에 방영되었던 4분 6초짜리 “Chaebol(재벌)” 편에는 ‘Chaebol’이라는 타이틀이 등장하기 전까지 27초간 도입부분이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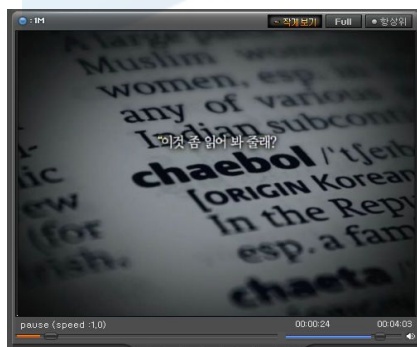
< 그림 1 > “Chaebol” 화면캡처 1



영국의 한 강의실(00:12)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00:17)



“이것 좀 읽어 봐 줄래?”(0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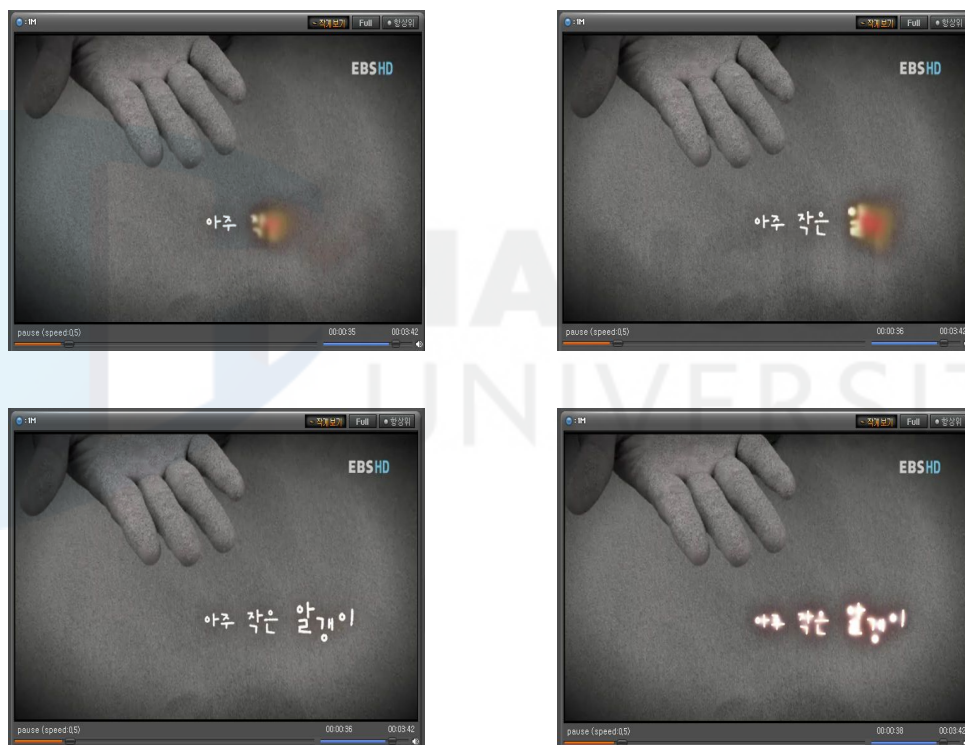


“Chaebol”(00:28)

시작 28초 후에 “Chaebol”이라는 타이틀이 등장하기 전까지 영국의 대학 강의실에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 이는 한국에만 있는 개념인 ‘재벌’이라는 한국어 어휘가 외국인에게 어떻게 비쳐지는가를 말하기 위해서이다. 영국의 대학 강의실에서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을 찾는 장면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영국인의 발음인 듯이 들리는 ‘Chaebol’이라는 소리는 그것이 ‘재벌’을 말하는지 ‘체벌’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싶은 관심을 환기시킨다.

도입부분으로 관심이 집중된 후 주제를 명료화 할 수 있도록 타이틀이 제시되는데, 이 타이틀로도 주제와 소재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경우도 있다.

< 그림 2 > “아주 작은 알갱이” 화면캡처 1



위의 화면은 2012년 7월 2일에 방영된 “아주 작은 알갱이”편의 타이틀 등장 장면이다. 이 편은 모래의 여러 가지 속성을 과학적으로 분석, 설명하는 내용인데, 시작 35초 후에 모래의 특성을 살려 흩뿌려지는 모래의 형

상인 무빙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하여 타이틀을 제시하면서도 제목을 “모래”로 하지 않고 있어 전체적인 내용이 모래에 관한 것이 맞는지를 시청자들이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보게 만든다.

타이틀이 제시된 후에는 드디어 본론이 전개된다. 본론의 전개방법도 다양하다.

< 그림 3 > “1초” 화면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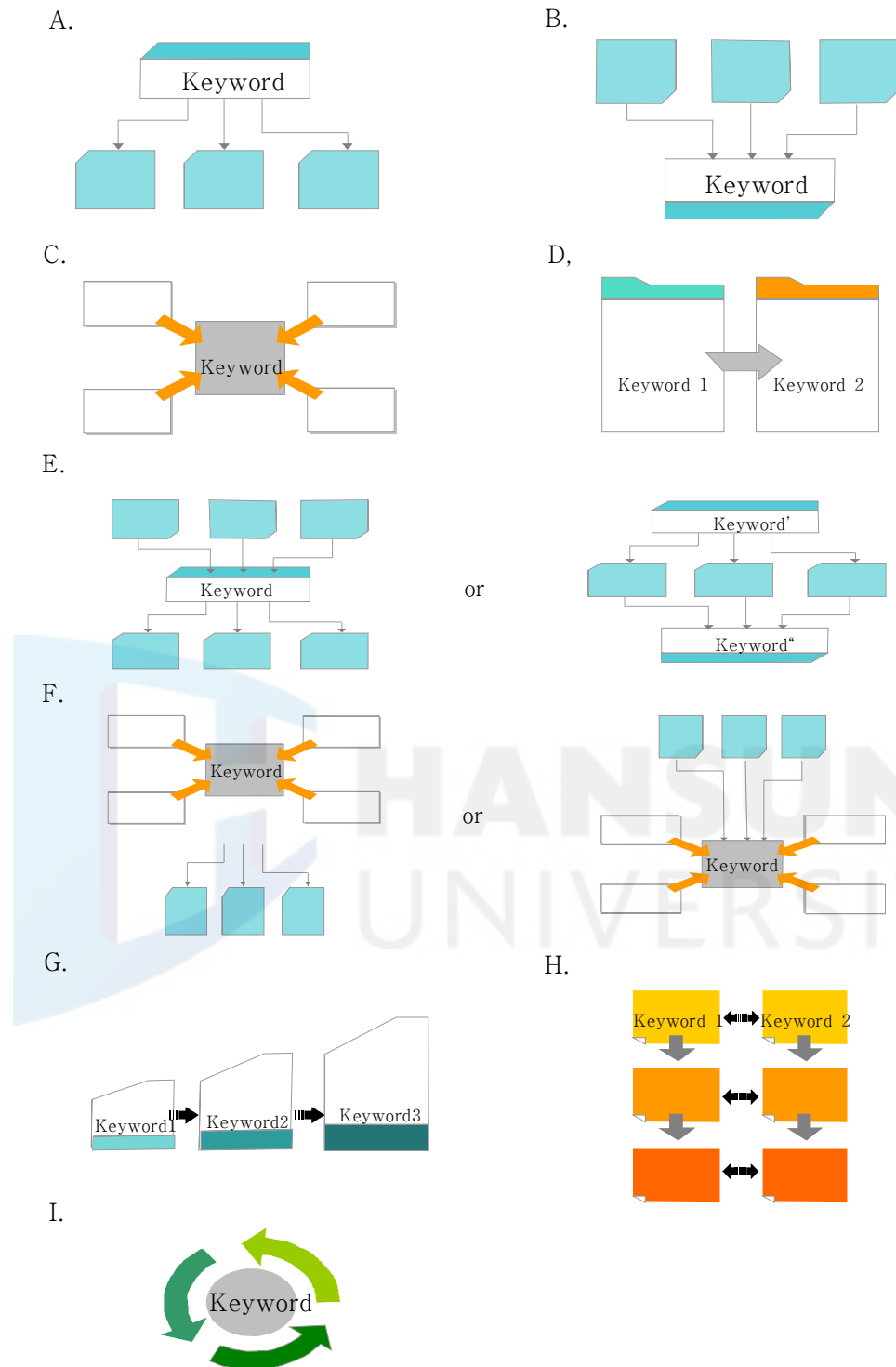


위 영상 캡처 화면들은 2005년 ‘지식채널e’의 첫 편으로 방영되었던 “1초”의 본론 부분 전체인데, ‘1초’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를 알리기 위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여러 내용들을 나열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패턴의 본론 제시법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았다.¹⁸⁾

18) 여기서 분류한 구조 패턴은 본론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타이틀이 제시되기 전 도입부분과 타이틀 제시 부분은 제외한 본론만의 구조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본론의 분량이 매우 짧기 때문에 형태적인 구조라기보다는 내용의 구조를 패턴화했다는 말이 어울린다.

[표 4] ‘지식채널e’ 본론 서술 구조



A와 같은 본론의 구조는 소재가 되는 Keyword 가 서두에 주어진 후 그것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여러 이야기들이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는 형태로 “먼지”(2011.11.14.), “1의 진화”(2009.06.15.)등이 있다

B의 구조는 서두에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거나 제시되었어도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짐작할 수 없는 Keyword를 향해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이 집중되어 가는 형태로 “아주 작은 알갱이”(2012.07.02.), “램프란트의 모델”(2006.05.15.), “무색투명한 정육면체”(2007.02.19.) 등이 있다.

C의 구조는 Keyword를 풀어나가는 이야기들이 특별한 연관성 없이 등가적인 무게로 나열되는 형태인데 위에서 언급한 첫 편인 “1초”(2005.09.05.), “엄마의 취업”(2012.02.06.)등이 해당된다.

D의 구조는 통념에 의해 이해되고 있던 Keyword가 발상의 전환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반전의 구조이다. “신분증을 제시해주시요.”(2009.07.13.), “한 장의 지도”(2008.06.09.) 등이 있다.

한편 “기적이 일어날 확률”(2008.09.01.), “7일간의 기적”(2011.09.26.)처럼 A와 B의 구조가 합쳐진 것(E 구조), “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2010.11.15.), “눈물의 정의”(2012.03.19.)처럼 A 또는 B와 C가 결합된 구조로 이루어진 것 등(F 구조)도 자주 등장한다.

G는 제시된 Keyword가 시선의 변화, 또는 사회 상황의 변화로 그 중요성이나 영향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는 구조로 “0의 진화”(2009.06.29.), “끝없는 3. 14”(2006.07.24.)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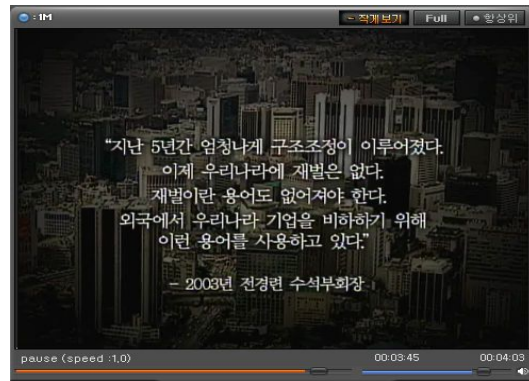
H는 두 개의 Keyword 가 대조, 대립되며 병렬식으로 서술되는 구조로 두 개의 서술내용이 대립적일 수도 있고, 같은 방향을 향해 병행되는 경우일 수도 있다. “8% 이야기”(2006.08.21.), “어떤 약”(2011.09.19.)등이 있다.

I는 위의 그 어떤 구조에도 해당되지 않고 Keyword 에 대한 일반적 서술 형식을 띤 구조로 A~H 중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는 편들이 해당된다.

본론이 제시된 후에는 여타의 스토리텔링 콘텐츠와는 다르게 결론에 해당하는 진술이 없이 객관적 인용이나, 주관적이라고 해도 제작자의 시선과는 분리되어 있는 여러 의견들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상호텍스트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시청자로 하여금 이제까지의 제작자

의 시선에서 벗어나 주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그림 4 > “Chaebol” 화면캡처 2



“지난 5년간 엄청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나라에 재벌은 없다. 재벌이란 용어도 없어져야 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비하하기 위해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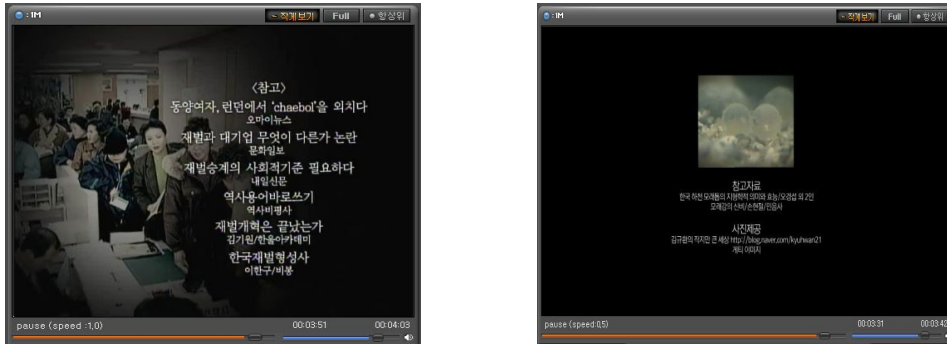
-2003년 전경련 수석부회장

위 화면은 앞에서 언급한 “Chaebol” 편의 ‘객관적 진술’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진술을 객관적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즉 재벌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전경련 수석부회장의 입장에서 재벌에 대한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이 받아드리거나 비판할 부분을 스스로 선별하게 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치 하나의 완결된 학술 보고서처럼 참고 자료가 이제까지의 감성 다큐멘터리를 표방한 내용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듯이 작고 움직임이 없는 건조한 글자체로 제시 된다.

아래의 영상캡처 화면은 “Chaebol”편과 “아주 작은 알갱이” 편의 참고 문헌 제시 화면이다.

< 그림 5 > “Chaebol” 화면캡처 3



이 부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적 비중이나, 작은 글자체와 많은 글자 수 때문에 시청자가 다 읽지 못할 수도 있는 상태로 구성되는데, 관심을 갖는 학습자라면 다시보기로 따로 검색해 참고할 수도 있고, 굳이 세세히 밝혀내지 않더라도 제작된 내용이 근거가 확실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콘텐츠마다 그 구조가 통일성이 있고 명확하기 때문에 학습 텍스트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며 효율적인 지도안을 구성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2.2.1.3. 학술적 텍스트로서의 적합성

일반대중들을 시청 대상으로 삼아 방영 길이가 짧고 감성적인 면을 살려 지나치게 현학적이지 않은 전개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음에도 ‘지식채널e’의 자막에는 학술적인 용어가 자주 등장하여 실제로 사고도 구어가 학술적 텍스트와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 과학, 교육, 동,식물/자연, 문학, 문화/예술, 미디어, 발상의 전환, 사회/시사, 산업화, 심리, 역사, 우주/지구, 정치/제도, 지식/정보, 철학>등의 주제 분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학문적 접근이 가능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어 나레이션을 배제한 자막(문자)의 텍스트 구성이 격식을 갖춘 고급 학술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2.2.2.항목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2.2.1.4. 자막의 특이성

‘지식채널e’는 다큐멘터리로는 예외적으로 음성 나레이션이 없이 자막과 영상 그리고 배경음악과 효과음만으로 스토리를 전개해가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은 마치 무성 영화를 보듯 영상속의 움직임이나 다른 신호 체계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Keyword로 간결하게 구성된 텍스트의 강렬함이 부각되고¹⁹⁾, 자막으로 활용되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²⁰⁾는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의 이해를 효율적으로 만든다. 이 독특한 자막에 관련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것이다.

2.2.1.5. 주제의 다양성

‘지식채널e’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앞서 살펴 본대로 42개의 타이틀별 분류나 47개의 주제별 분류로도 알 수 있듯이 그 주제와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관심, 성향, 구성, 목적 등에 맞는 적절한 텍스트를 선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뜻이며 학습의 단계에 따라서, 또는 관련 있는 내용에 따라 여러 편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갓난아이의 성장발달과정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아이들의 표정, 몸짓, 행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Baby sign(2005.09.05.)”편

19) P.S.Koskinen외(1993)는 "In addition, another study conducted with bilingual students found that those who viewed captioned videos performed significantly better on word identification, word meaning, and content learning assessments than students who viewed the same videos without captions"라고 하여 Keyword로 축약된 자막의 어휘 교육에서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20) 이현화·박승호(2006:17)의 개념을 빌어 설명하자면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란 언어를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의 방법론과 기술이 결합한 것이며 여기에 크기와 중량, 간격들을 혼합하여 공간과 시간, 속도, 소리, 테크놀로지등을 결합해 표현해 놓은 문자 형태를, 움직임의 의미가 있는 ‘kinetic’이라는 말을 더하여 “키네틱 타이포그래피(Kinetic typography)” 또는 “무빙 타이포그래피(Moving typography)”라 한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움직이는 문자’라고 말할 수 있다.

과 먼 옛날부터 동물들의 몸에 새겨진 오래된 습관을 보여주는 “통증·본능(2012.05.28.)”편 그리고 우리들의 무의식 속 감정의 신호를 다룬 “신호 Sign(2012.07.09.)”편은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내재화된 본능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며 그런 것들을 Sign(신호)으로 삼아 어떤 의사소통이 발생하는가를 다룬다는 점에서 내용의 연결성도 있고 제목과 자막에 신호, Sign 이라는 어휘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2.2.1.6 적절한 분량

수업을 위해 효과적인 영상 자료를 선택하려할 때 교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영화나 TV 드라마, 뮤직 비디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광고 등이다.

내용이나 표현 형식, 상업성 여부등 수업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선정 기준 중에는 수업에 적절한 분량인가도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나 TV 드라마를 선택할 경우에는 시간상 일부분을 편집하거나, 전체를 다 활용하더라도 여러 차시에 걸쳐 한 번만 시청할 수 있는 등 제약이 따른다.

이런 점에서 ‘지식채널e’는 그 분량이 수업에 활용하기에 매우 적절한데 이제까지 제작된 850여편 중에 가장 긴 편들이 7분 2초(“사라진 열차”, 2007.08.20. 방영), 7분 1초(“어떤 성직자들 1부”, 2010.12.27. 방영)이고, 가장 짧은 편들은 3분 3초(“나는 2억 5천만원입니다”, 2005.09.19. 방영), 3분 7초(“1년의 시작”, 2006.01.02. 방영)로 이 네 편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분량이고 대부분이 4분에서 5분 내외로 제작되고 있다.

이는 반복 시청도 부담이 없는 분량이어서 교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2.2.1.7. 접근의 용이성

아무리 훌륭한 교재라 할지라도 접근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용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큰 부담을 느껴 활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지식채널e’는 일주일에 두 편씩 제작되고 반복적으로 방영이 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작된 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누구나 무료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는 개방된 영상물이다.

이러한 손쉬운 접근성은 교사와 학습자가 학습 자료로 선택하는데 매우 큰 장점으로 요즈음 거의 모든 강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장비를 이용하여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포털 업체 다음(Daum)은 ‘EBS 지식’(ebs.daum.net)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있다. 이미 무료로 접근 가능한 ‘지식채널e’의 콘텐츠를 당사의 검색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채널e’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며, 또한 얼마 전부터는 스마트 폰으로 모바일 웹을 다운받아 어디서든 ‘지식채널e’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2.2.1.8. 높은 호응도로 검증된 보편성

‘지식채널e’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모든 콘텐츠에는 수많은 댓글과 조회수가 기록되어 있어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012년 8월 현재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편은 “2007,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2007.04.30.방영)으로 195,985회의 조회기록이 있고 댓글도 1,178개에 이른다.

‘지식채널e’ 홈페이지에는 매일 수 천 명의 시청자들이 방문하고 있고 1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한 편들도 다수이다. 21)

또한 포털 사이트인 다음(Daum)에는 이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

21) 2012년 8월 10일 현재, 앞에서 언급한 “2007,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2007.04.30)”, 195985회 외에도 “공부하는 아이 (2008.07.21)”, 174,759회, “17년 후 (2008.05.12)”, 142,042회, “네 잘못이 아니야 (2007.06.11)”, 112,224회, “1초 (2005.09.05)”, 169,934회, “공부 못하는 나라 (2011.05.02)”, 109,299회, “눈의 착각 (2006.02.06)”, 122,474회 등이 있다.

사들의 모임인 ‘지식채널e 연구회 (cafe.daum.net/dahamgge-e)’라는 카페도 만들어져 많은 교사들과 일반 시청자들이 개인적인 소감과 수업활용 방안 또는 활용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유익한 보편적 사회, 문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요소이다.

2.2.2. EBS ‘지식채널e’의 한국어 어휘교육에서의 효율성

위 2.2.1.에서 ‘지식채널e’의 여러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였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어 어휘교육에 적합한 세 가지 요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2.2.2.1. 적절한 사고도구어 비율

‘지식채널e’가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학습 교재로 활용하기에 적절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자막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분석하여 학술텍스트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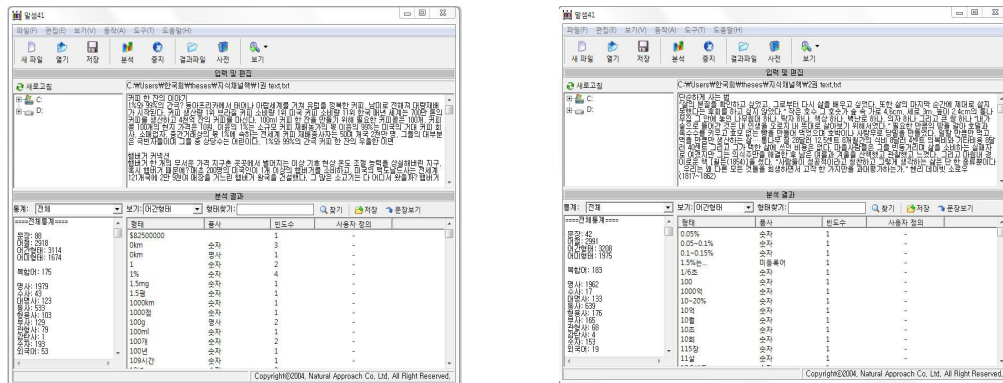
II장에서 언급한 사고도구어는 학술 텍스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어휘로 전체 내용의 8~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식채널e’의 자막이 일반적 학술텍스트와 마찬가지로 8~10%의 사고도구어를 포함하고 있다면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교육에 적합한 교재가 될 것이다.

책으로 출간된 『지식e Season 1~7』에 수록된 217편 중 수업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101편을 제외한 116편의 자막 속 모든 어휘를 형태소 분석기 ‘말셈4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²²⁾

다음은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한 분석 모습이다.

22) 2012년 7월 16일까지 제작된 총 850편의 EBS ‘지식채널e’ 프로그램 중 본 연구에서 수업 활용으로부터 제외하고자 하는 편들과 그 이유는, III장 “EBS ‘지식채널e’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교육의 실제”에서 제시할 것이다.

< 그림 6 > 말셈41을 이용한 형태소 분석 모습



사고도구어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동음이의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1권에서 2번 등장한 단어 ‘구조’의 경우 사고도구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구조08’만이 해당되므로 ‘구조05’에 해당되는 1권의 ‘구조’는 사고도구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단어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예를 들어 ‘건설’의 경우 ‘건설’, ‘건설하고’, ‘건설하다’, ‘건설해서’, ‘도로 건설’ 등이 모두 ‘건설’ 항목에 분류가 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지식e Season 1~7』 텍스트의 사고도구어 비율²³⁾

	수록 편 수	분석 편 수	총 분석 단어 수	사고도구어 수	사고도구어 비율
1권	40	21	2,918	222	7.61 %
2권	40	20	2,991	254	8.49 %
3권	30	10	1,987	191	9.61 %
4권	27	16	2,623	283	10.79 %
5권	20	11	1,960	204	10.41%
6권	30	22	4,159	362	8.70 %
7권	30	16	2,540	286	11.26 %
계	217	116	19,178	1,802	9.40 %

23) 해당 어휘 목록은 부록에서 볼 수 있다.

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채널e’는 전체 어휘의 9.40%가 사고도구어로 이루어져있고, 이는 학문목적 학습자들이 대학, 대학원에서 전공을 위한 학술텍스트에서 만나게 되는 사고도구어의 비율과 일치하는 수준이다.²⁴⁾

2.2.2.2. 무빙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독특한 자막

< 그림 7 > “아주 작은 알갱이” 화면캡처 2



“농사를 지어볼까?”



“모래에서 싹 나길 바라지!” 오른쪽에서 등장



“농사를 지어볼까?”가 왼쪽으로 밀려나기 시작



“농사를 지어볼까?”는 왼쪽으로 튕겨나가기 시작

24) 각주 9) 참조.



“농사를 지어볼까?”는 왼쪽으로 완전히 튕겨나감



“아니면 집을?”



“모래위에 집짓기!” 오른쪽에서 등장

“아니면 집을?”은 왼쪽으로 밀려나기 시작



“아니면 집을?”은 왼쪽으로 튕겨나가기 시작



“아니면 집을?”은 왼쪽으로 완전히 튕겨나감

위의 캡처된 화면들은 “아주 작은 알갱이” 편의 도입부분에 제시되는 무빙 타이포그래피이다.

모래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농사와 집짓기라는 행위가 언급되는데, 두

가지 다른 글자체로 두 사람의 대화임을 보여주고 있고, 한 사람의 제안을 상대방이 반박함으로써 제안한 사람의 의견이 터무니없음을 나타낸다.

즉 ‘?’로 끝나는 의견 제시의 자막은 ‘!’로 끝나는 반박의 자막에 밀려 화면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데, 이는 모래가 농사나 집짓기에 적합지 않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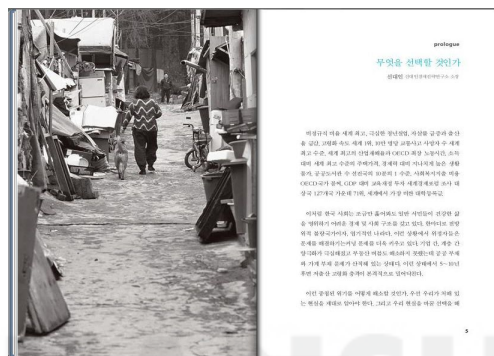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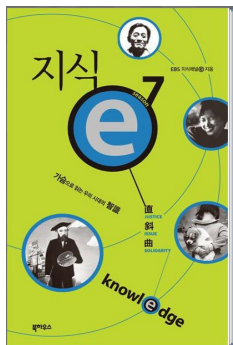
2.2.2.3. OSMU 방식의 텍스트

OSMU(one source multi use)란 “하나의 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사용처를 개발해내는 것,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게임, 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전략으로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²⁵⁾ 이미 출간된 책을 영화화 하거나 영화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마케팅에서 OSMU가 ‘최소 투자비용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한국어 교재에 이를 적용하면 같은 내용을 표현 방식과 매체를 달리 하여 반복 학습을 하게 함으로써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같은 내용의 텍스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표현 매체에 따른 특성을 경험하여 다각적 인지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5)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2371&mobile&categoryId=2954>) 참조



『지식e Season 1~7』 시리즈는 영상 콘텐츠를 인쇄물로 만든 결과물답게 영상으로 보여주었던 화려한 화보를 곁들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지식채널e’가 지금까지 방영한 영상 콘텐츠를 시즌별로 일곱권의 책으로 출판한 것은 이런 점에서 한국어 교육의 교재로서 적합한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Ⅲ. EBS ‘지식채널e’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교육의 실제

3.1. 어휘교육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

3.1.1. 어휘 학습 자료로 적절한 콘텐츠의 선별

2012년 7월 16일 현재 ‘지식채널e’에서 제작한 총 850편의 다큐멘터리를 이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학습 모형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타이틀별 제작 편수를 조사해 보았다. EBS에서 자체적으로 타이틀별, 내용별 분류를 제시해 놓았는데, 이중 내용별 분류를 따르지 않고 타이틀별 분류를 따르는 이유는 각 편마다의 내용별 분류가 2~3개 이상의 내용에 걸쳐 분류가 되어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타이틀의 순서도 ‘지식채널e’ 홈페이지에 제시된 대로 따랐다.

여기서 말하는 ‘타이틀’이란 『① 영화에서, 각종 정보를 문자로 표시한 자막(字幕). 제목을 알려 주는 표제 자막, 제작진이나 출연진을 소개하는 인물 자막, 영화의 끝을 알리는 종영 자막, 외국 영화의 대사를 적은 대사 자막 따위 ② 선수권』²⁸⁾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참조해 볼 때 주제와는 상관없이 각 편이 제시되는 제목, 즉 키워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작별(2002.02.16 방영)” 편은 공교육 과정을 끝낸 학생들의 졸업을 다룬 내용이어서 ‘교육’ 타이틀에 분류될 법도 한데, ‘작별’이라는 타이틀 속의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추억, 아쉬움, 관계등을 고려한 때문인지 ‘교육’이 아닌 ‘기억(memory)’라는 타이틀로 분류되어있다.

때로는 이러한 타이틀 분류도 모호한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신라 첨성대를 다룬 “신라 첨성대의 상징성을 아시나요?(2012.06.18.방영)”편과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말하는 “디자인의 생명은 질서와 생명이다

27) 예를 들어 2012.07.16.일에 방영한 “어머니의 고백”편은 타이틀별로는 ‘사람’으로 분류되지만, 내용별로는 가족/공동체, 인간/삶, 인권, 인물 등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28)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2012.04.30.방영)”편은 문화유산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같았으나 각각 ‘문화’와 ‘게스트’ 타이틀로 분류되어 있다든가,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이야기하고 있는 “6명의 시민들 1, 2 부(2007.04.30., 2007.05.07. 방영)”는 1부는 ‘사회’ 타이틀에, 2부는 ‘사람’ 타이틀에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의 ‘지식채널e’ 프로그램 분석은 프로그램 자체를 연구하기 위한 분석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의 영상텍스트로서의 활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EBS 의 분류를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표 6] EBS‘지식채널e’의 타이틀별 분류

타이틀별 분류	편수	타이틀별 분류	편수
정체성(identity)	8	어린이(children)	13
지구(earth)	6	언론(media)	15
건강(health)	3	여행(travel)	2
경제(economy)	29	영웅(hero)	3
공간(space)	5	영화(cinema)	7
과학(science)	43	예고편(preview)	3
관계(relation)	27	이야기e이야기	24
교육(education)	22	인간(humane)	18
기술(technology)	8	인생(life)	37
기억(memory)	29	인터뷰(interview)	3
돈(money)	5	자연(nature)	33
문학(literature)	24	지식(knowledge)	55
문화(culture)	34	진실(true)	19
뮤직비디오(music video)	4	캐릭터(character)	5
민주주의(democracy)	8	환경(environment)	11
사람(people)	113	희망(hope)	5
사회(society)	122	정서(emotion)	7
삶(live)	15	beyond	13
상상(imagine)	17	게스트(guest)	10
생존(survive)	20	꿈(dream)	7
수학(mathematic)	7		
계		839	

이 839편의 미니 다큐멘터리 중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콘텐츠를 선별하기로 하였다.

Tomlinson(2010:7-21)은 언어 학습자료를 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²⁹⁾

- 1) 학습자의 호기심, 흥미, 관심을 끌어야 한다.
- 2) 학습자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한다.
- 3) 학습자에게 자신감을 길러 주도록 해야 한다.
- 4) 학습자가 생활에 관련된 적절하고도 유용한 내용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5)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관련된 관심과 노력,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 6)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 7)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이 학습되어야 한다.
- 8) 학습자가 학습 내용의 언어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개발해야 한다.
- 9) 학습자가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목표어를 사용할 기회를

29) Tomlinson(2010:7-21)의 내용 중

- 1) Materials should achieve impact.
 - 2) Materials should help learners to feel at ease.
 - 3) Materials should help learners to develop confidence.
 - 4) What is being taught should be perceived by learners as relevant and useful.
 - 5) Materials should require and facilitate learners self-investment.
 - 6) Learners must be ready to acquire the points being taught.
 - 7) Materials should expose the learners to language in authentic use.
 - 8) The learners' attention should be drawn to linguistic features of the input.
 - 9) Materials should provide the learners with opportunities to use the target language to achieve communicative purposes.
 - 10) Materials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instruction are usually delayed.
 - 11) Materials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learners differ in learning styles.
 - 12) Materials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learners differ in affective attitudes.
 - 13) Materials should permit a silent period at the beginning of instruction.
 - 14) Materials should maximise learning potential by encouraging intellectual, aesthetic and emotional involvement which stimulates both right and left brain activities.
 - 15) Materials should not rely too much on controlled practice.
 - 16) Materials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outcome feedback.
- 을 번역하여 인용하였음.

제공해야 한다.

- 10) 수업의 효과란 보통 지연되어 나타남을 감안해야 한다.
- 11) 학습자들의 학습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 12) 학습자들의 정서적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 13) 학습초기에는 침묵 기간(A Silent Period)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 14) 학습자의 좌뇌와 우뇌 양쪽을 자극하는 지적, 심미적, 정서적 활동을 격려하여 학습자의 학습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 15) 통제된 연습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 16) 학습 결과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중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 교육 자료로서의 영상텍스트와 관련 있는 항목은 1), 3), 4), 5), 7), 8), 12), 14)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선정·허용(1999)이 제시하고 있는 언어 교재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은

- 1) 자극성(stimulus) :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자극
- 2) 흥미성(interestingness) : 현실과 부합되는 신빙성을 위해 최근의 대중 매체 활용
- 3) 적합성(appropriateness) : 사회적이고 언어적인 면의 적합성
- 4) 명확성(clariness) : 전달 내용과 교육 목표의 명확성
- 5) 의사소통성(communicability) : 의사소통 능력 개발
- 6) 효율성(efficiency) : 시간적이고 금전적인 면에서의 효율성이다.

위 원칙 중에는 1), 2), 6)의 항목이 자식채널 프로그램이 갖추고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강성훈(2004)은 McGovern(1983)을 인용하여 교육에 적합한 영상 매체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장면들은 학습동기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 2) 배경, 등장인물, 학습주제 등은 현실적이며,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 3) 자료의 길이는 30분을 넘지 않아야 하고, 학습자가 충분히 주의를 집중할 만한 길이의 내용이어야 하며, 보다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단위 내용을 3~4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면 더욱 좋다.
- 4) 학습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복잡해서는 안 되며 이해하기 쉽고 간단해야 한다.
- 5) 학습에 투입함에 있어서 언어 학습에서 볼 때 유익하고 흥미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6) 등장인물이 학습활동을 유도하는 내용을 가진 자료가 좋다.
- 7) 학습자의 언어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뭔가 토론할 만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 8) 음성적 신호만이 아닌 모든 신호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어떤 행동이나 몸짓 태도 등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9) 기계적 장치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자료이어야 한다.

위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성격상 6)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지식채널e’ 프로그램이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박민정(2010)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화 수업에서 활용할 다큐멘터리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 1) 언어전달력이 좋은 소재여야 한다.
- 2) 등장인물과 내레이터는 표준어 혹은 표준어에 가까운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 3) 폭력적인 장면 또는 등장인물들이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노출되는 소재는 제외해야 한다.
- 4) 한국 문화의 특수성이 잘 드러나는 소재여야 한다.

유현정(2011)은 주소희(2010), 박민정(2010), 김수정(2008), 강성훈(2004)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어교육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7] 유현정(2011)의 한국어교육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선정기준

	선정 기준
학습자 관련	·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학습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 것. · 학습자의 수준과 기호에 맞는 내용. · 학습자의 모문화의 특징과 상관없이 보편적 정서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언어 사용 관련	· 자막과 나레이션은 표준어를 사용하며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 ·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된 것은 제외함. · 발화 속도가 적당한 것.
내용 관련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내포한 것. · 사회의 부조리, 폭력, 선정성 등 부정적인 면이 부각된 것은 제외함. · 일정한 정도의 서사적 구조를 갖추어 학습자가 내용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 말하기, 쓰기 등의 다양한 후속 활동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내용.
시간 관련	· 자료의 전체 길이가 20분 이내이거나 또는 그 정도의 분량으로 발췌 또는 편집이 가능한 구성으로 되어있는 것.
교사 관련	·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일 것. · 교실 안에서 교사가 기기조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일 것.

본고에서는 Tomlinson의 언어교재 개발 고려 항목과 McGovern(1983)의 언어 교재로서의 영상 매체 선정기준, 박민정(2010)의 한국어·문화 수업에서 활용할 다큐멘터리 선정 기준, 그리고 유현정(2011)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지식채널e’ 839편의 미니 다큐멘터리 중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외 기준을 적용하였다.³⁰⁾

30) 2012년 7월 16일 현재 가장 최근작인 “무연사회(2012.07.16.)”의 제작 번호가 850번으로 총 제작편수가 850편임에도 타이틀별 분류에 제시된 총 편수가 839편인 이유는 타이틀

특히 유현정(2011)에서 제시된 기준에서 언어 사용, 시간, 교사 관련 내용은 ‘지식채널e’가 이미 갖추고 있는 형식적인 부분이므로 학습자와 내용 관련 항목을 집중하여 반영하였다.

- 1) 국적이 다양할 수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구성을 고려하여 자칫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 정치, 국제 분쟁관련 주제를 다룬 편은 제외
- 2) 특정 국가 혹은 한국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강하여 외국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나 지역정서 관련 편은 제외
- 3) 일시적인 유행의 코드, 또는 현안에 치중하여 보편성을 잃은 주제, 또는 학습에 적절치 못한 주제 관련 편은 제외
- 4) 주제의 시의성이 적절치 않은 편은 제외
- 5) 시리즈로 제작되어 단편적 적용이 어려운 연속물편은 제외
- 6) 어떤 한 개인의 신변 잡기식 수필형식의 서술이 적용된 편은 제외
- 7) 전체적인 내용의 서술이 상징, 또는 풍자로 일관하거나 지나치게 함축적이어서 해석에 여러 층의 의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편은 제외
- 8) ‘지식채널e’ 프로그램 자체의 제작이나 소개관련 편 또는 앞으로 방영될 내용의 예고편은 제외

위의 제외기준에 따라 영상 텍스트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선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한국어 교육 영상텍스트로 활용 가능한 EBS‘지식채널e’ 콘텐츠³¹⁾

타이틀별 분류	편수	타이틀별 분류	편수
정체성(identity)	7	어린이(children)	7
지구(earth)	5	언론(media)	8
건강(health)	3	여행(travel)	0
경제(economy)	17	영웅(hero)	2
공간(space)	4	영화(cinema)	1
과학(science)	33	예고편(preview)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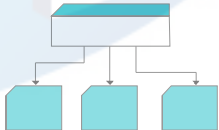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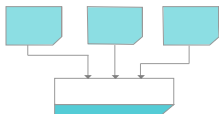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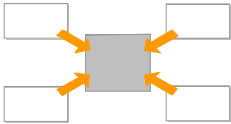
별 분류에 빠져있는 편들이 있어서임을 밝혀둔다. 예를 들어 “두바이의 꿈(제작번호422, 2008.05.05.)”는 내용별로는 노동, 산업화로 분류되어 있으나, 타이틀별 분류가 없고, “올림픽, 정신 (제작번호334, 2007.09.17.)”도 내용별로는 분류 가치관/관점, 국제, 인권에 분류되어 있지만 타이틀별 분류가 누락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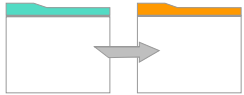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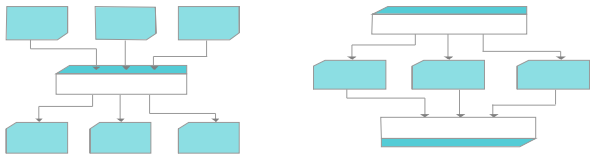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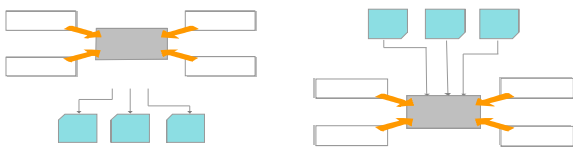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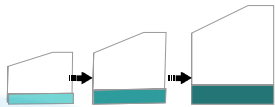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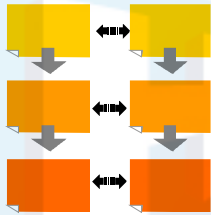
31) 선별된 콘텐츠 목록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관계(relation)	21	이야기e야기	3
교육(education)	7	인간(humane)	8
기술(technology)	4	인생(life)	27
기억(memory)	15	인터뷰(interview)	0
돈(money)	4	자연(nature)	25
문학(literature)	11	지식(knowledge)	44
문화(culture)	23	진실(true)	6
뮤직비디오(music video)	0	캐릭터(character)	1
민주주의(democracy)	5	환경(environment)	8
사람(people)	54	희망(hope)	4
사회(society)	45	정서(emotion)	5
삶(live)	7	beyond	9
상상(imagine)	11	게스트(guest)	4
생존(survive)	11	꿈(dream)	3
수학(mathematic)	5		
계		457	

위의 총 457편의 내용을 앞서 분석한 A ~ I 의 서술 구조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 9] 한국어 교육 영상텍스트로 활용 가능한 EBS'지식채널e' 콘텐츠의 서술 구조별 분류

본론 전개 구조		편수
A		20
B		112
C		51

D		44
E		80
F		34
G		60
H		25
I		31
계		457

이상의 선별, 분류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를 살펴보면 ‘지식채널e’의 서술 구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B(112편)와 E(80편) 구조이다.

이는 짧은 시간에 정해진 Keyword를 제시하고 설명하는데, 그 두 가지 서술구조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 이 패턴을 사용하여 많은 편수를 제작하였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지식채널e’를 영상 텍스트로 활용하는 수

업에서도 이 두 가지 패턴의 서술 구조로 전개되는 콘텐츠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준다.

우선 B는 미괄식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지식채널e’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조 패턴으로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이 한곳으로 집중되고 그것이 Keyword로 부각되어 마지막 부분에 메시지가 확실히 형성되는 형식이다.

이는 ‘지식채널e’에 가장 어울린다고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이 산발적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그 호기심이 해결될 시간이 멀리 않음을 학습자들이 알고 있어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Keyword에 대한 유추와 상상을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는 A와 B의 구조가 혼합된 형태로 양괄식이거나 중괄식인 구조이다. 이야기가 한곳으로 집중되거나 한곳으로부터 비롯되는 형식이 번갈아 있는 형태여서 양괄식인 경우와 중괄식인 경우의 구분을 두지 않고 분류하였는데 중괄식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또한 이제까지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에 대한 다른 시선을 다룬 D 구조와, 어떤 주제에 대한 의미 확장을 다룬 G 구조도 많이 등장하였다.

분류의 기준이 된 서술 구조를 ‘집중 또는 분산’, ‘변화 또는 확장’, 그리고 특별한 구조적 특징이 없이 수필적 서술 구조를 지닌 ‘기타’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각의 카테고리를 ‘갈래형’과 ‘확장형’, ‘기타형’으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두괄식, 미괄식, 중괄식, 양괄식 내용이 모두 이야기의 ‘갈래’가 모이거나 분산되는 형식이고, 인식의 변화나 개념의 확장을 모두 ‘확장’이라는 말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0] 한국어 교육 영상텍스트로 활용 가능한 EBS‘지식채널e’ 콘텐츠의 서술 구조 카테고리별 분류

서술 카테고리	서술구조
갈래형 (집중 또는 분산)	A, B, C, E, F
확장형 (변화 또는 확장)	D, G, H
기타형	I

‘지식채널e’에서 도입하고 있는 독특한 자막 속의 어휘가 한국어 어휘학습에 제대로 응용되기 위해서는 각 서술구조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학습지도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카테고리, ‘갈래형’과 ‘확장형’에서 각각 한 편씩을 골라 해당구조의 콘텐츠를 활용한 교수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3.1.2. 어휘 지도(word map)의 활용

‘지식채널e’의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교수안을 작성하는 데에 3차원적 표현 방식³²⁾인 무빙 타이포그래피의 형식으로 제시된 자막 속의 어휘를, 그 특징을 살려 표로 작성하는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

이 표 작성법은 텍스트의 내용과 서술구조를 활용한 방법으로 “어휘지도(word map)”라고 이름 붙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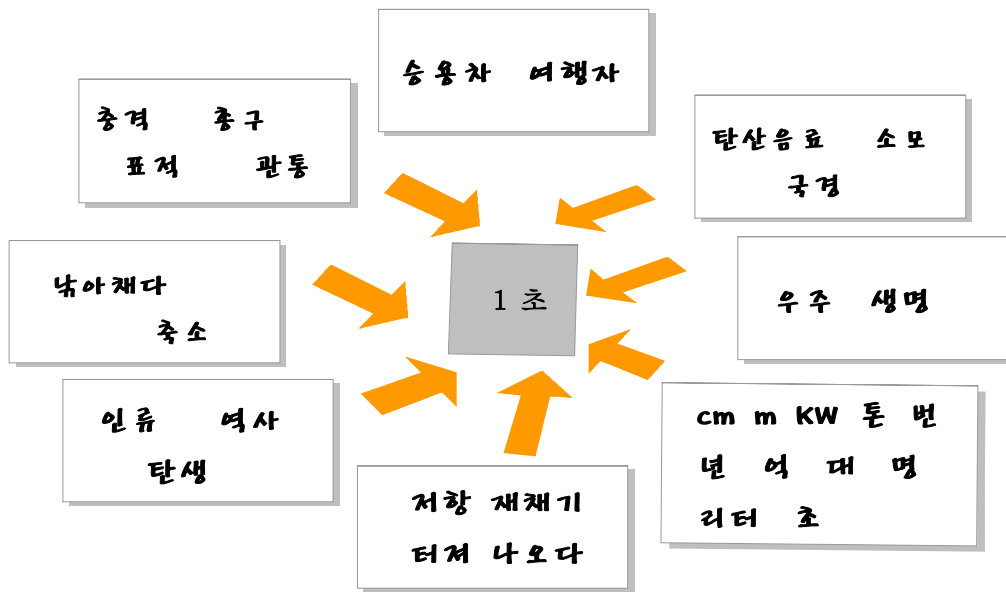
서술구조에 따라 A, B, C, D, E, 또는 F 형의 도표³³⁾가 어휘지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 도표는 학습자들이 텍스트에서 보고 기억하거나 떠오르는 어휘를 적어보는 일종의 학습지로, 이야기에 따라 등장하는 어휘를 분류하고 기록함으로써 메시지의 중심으로 다가가게 해주는 장치와 같다.

앞서 캡처된 화면으로 소개했던 “1초(2005.09.05)”편을 활용해 학문목적 학습들을 위한 어휘 지도 수업을 한다면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다음과 같은 C형의 어휘지도를 작성해 볼 수 있겠다.

32) 정혜욱(2008)은 무빙타이포그래피가 서체와 색상, 크기 선택 등 형태적 속성에 따라 의미와 감정이 가변적으로 시각화 될 수 있어 3차원적 공간에서 무한히 확장가능하다고 하였고, 문자와 시각이미지를 결합하고 시간과 공간을 결합한 혼성언어로서 구술성과 문자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전통적인 언어와 구분되는 ‘제 4의 언어양식’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33) 표[9] 에서 보여준 각 도형을 말한다.

< 그림 9 > “1초” 어휘 지도 활동지(예시)



3.1.3. 영상 텍스트 활용 어휘 학습 단계

Koskinen·Wilson, 그리고 Gambrell (1993)은 자막이 있는 영상 매체를 활용한 어휘교육을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설정하였다.³⁴⁾

- (1) 교육과정에 적절하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상을 준비한다.
- (2) 2분에서 10분 정도의 시청할 부분을 선택한다.
- (3) 영상에서 학습자들에게 교육하게 학습대상이 될 어휘와 관용구, 그리고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한다.
- (4) 학생들이 주의를 기울여 학습할 어휘와 전체적인 구조를 미리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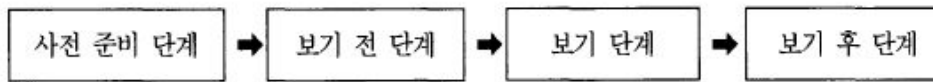
34) Koskinen·Wilson, 그리고 Gambrell (1993)의 내용 중

- (1) Find video that matches your curriculum and is of high interest to the students.
- (2) Use short segments; anywhere from two to ten minutes is ideal.
- (3) Preview the video and find appropriate vocabulary, idioms and/or content to highlight for the students.
- (4) Pre-teach vocabulary or structures that the students may find especially difficult.
- (5) Locate related texts to support your lesson.
- (6) Create opportunities for repeated exposures.를 번역하여 인용하였음.

- (5) 영상 속에서 해당 어휘를 찾아보게 하여 학습효과를 높인다.
 (6) 다시보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게 한다.

또한 한선(2007)은 영상 매체를 활용한 문화교육의 절차로 다음의 4단계를 설정하였다.

[표 11] 한선(2007)의 영상 매체를 활용한 문화교육의 4단계



이들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지식채널e’를 어휘 학습에 활용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 12] EBS‘지식채널e’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어휘 수업의 5단계



그 단계별 학습활동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지식채널e’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어휘 수업의 5단계 학습활동

단계	학습 활동
준비 단계	콘텐츠에 대한 간단한 소개 (주제, 구조) 학습자들이 하게 될 활동과 과제를 알려줌
보기 전 단계	영상을 보기 전에 자막을 인쇄물로 읽게 함 어휘의 사전적 의미 확인
보기 단계	영상 보기
보기 후 단계 (확인 단계)	자막과 영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해의 차이 확인 문맥 속에서의 어휘의 의미를 추측하게 함(어휘 지도 작성)
다시 보기 단계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하며 영상 다시 보기

본 연구에서 설정한 5단계는 한선(2007)의 4단계나 Koskinen·Wilson 그리고 Gambrell (1993)의 6단계와는 달리 준비 단계³⁵⁾이전에 콘텐츠의 선정 및 교사의 텍스트 분석이 모두 끝난 상태로 준비 단계부터가 수업의 시작이 된다. 즉 본고에서 제시한 ‘준비 단계’는 본격적 학습을 위한 도입 활동을 이른다.

3.2. 어휘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본 연구가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어휘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있지만 실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업 전체를 어휘 학습에만 할애할 수는 없고,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사전 준비로서의 어휘 교육의 의의에 맞게 전체 차시 중 앞부분을 차지하는 어휘 교육의 내용을 다루는 교수안을 제시하려 한다.

‘지식채널e’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수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괄적 교수안을 계획할 수 있다.

36)

[표 14] EBS‘지식채널e’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개괄적 교수안

차시	학습 내용	
	활동	학습의 양상
1차시	어휘, 세부 내용 확인	접근 및 확인(사실적 이해)
2차시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심층적 이해와 문화 교육	통합 및 해석(추론적 이해)
3차시	토론과 글쓰기	성찰 및 평가(비판적 이해)

콘텐츠의 내용과 길이에 따라 차시가 늘어나거나 줄어 들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1차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체 교

35) 한선(2007)의 ‘사전 준비 단계’는 교사가 학습 자료를 선정하고 미리 본 후 핵심 내용을 편집하고 구체적 학습지도안을 작성하는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36) 국가 학업성취도의 국어과목 평가 기준과 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 학력평가인 PISA의 읽기 양상 범주를 참고하였다.

수안에서는 도입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분류한 갈래형 서술 카테고리에서는 ‘지식채널e’에서 가장 많은 서술 형태인 B구조의 “아주 작은 알갱이” (2012.07.02)를, 확장형 서술카테고리에서는 D구조의 “신분증을 제시해주십시오”(2009.07.13)를 선정하여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주 작은 알갱이”편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인 ‘모래’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모래가 인간의 생활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유익한 내용이고, “신분증을 제시해주십시오”는 여러 가지 신분증이 생활 속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유학생 신분인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상황에 친숙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3.2.1. 확장형 교수·학습 지도안

확장형 서술카테고리의 D구조 콘텐츠 중 “신분증을 제시해주십시오”(2009.07.13.)편의 자막은 다음과 같다.³⁷⁾

37) 실제 자막에 등장하는 각 글자체를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실제 콘텐츠는 http://home.ebs.co.kr/jisike/content_mov_detail.jsp?enc_seq=3028198&command=vod&chk=T&client_id=jisike&menu_seq=1&col=&str=&gno=&y=2009&order=1&order_direct=desc&cate_div=&gubun=&curPage=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6년 겨울 시칠리아 남동쪽 해안
수백 명의 난민을 태운 배 난파 사망자 300여명
그러나 사고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20년 만에 돌아온 오디세우스를 확인 시켜 준 것은 다리에 있는 오래된
흉터.

몸.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신분증명의 수단

신분증명의 기본 원리

‘나’ 는 ‘너’ 와 다르다.

초기의 신분증. 귀족들의 상류층에게 권위와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

이후 사절이나 상인들의 이동을 보호하기 위해 추천서나 통행증 발행.

“이 문서를 지닌 자들과 물건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오.”

그러나 지배층이 통제하기 위해 의무화되는 신분증명.

“국경을 지나는 모든 자들은 신분증을 지니도록 하라!”

의무에 뒤따르는 관리, 통제, 감시.

계급과 직업 외에도 수염의 여부, 머리카락의 형태, 눈동자의 색.

사람과 신분증이 일치함을 밝히기 위해 자세히 기록.

1950년대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실행 전 발급된 시 도민증 신장, 체중, 혈액형
까지 기록.

그리고 현재 나를 나타내는 수많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그러나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나란 존재가 사라지는 것과 같죠.”

“학생증이 없으면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못 빌려요.”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이 꼭 필요합니다.”

제시해 주십시오. 신분증을

판단되는 대상은 ‘나’가 아닌 일련번호, 비표와 관인, 홀로그램, 전자칩.

“우리가 아무리 깔끔하고 확실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증을 보증해주는 것은 우리자신이 아닌 타인, 공권력이다.”

발렌틴 그뢰브너, 역사학자.

그리고

1996년 난파 사고가 있는 지 얼마 후,

어부가 건져 올린 신분증 하나.

발행국 스리랑카 이름 안파라간 가네슈, 나이 열 일곱,

언론은 신분증을 대서특필했고 정부는 그제야 사건조사에 착수했다.

위 자막의 내용을 어휘 학습을 위한 서술 구조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신분증을 보여 주십시오”의 서술구조 도식³⁸⁾



3.2.1.1. 준비 단계 (10분)

(1) 콘텐츠에 대한 간단한 소개

38) [표9]의 D구조 도형 참조

- ① ‘신분증’으로 인한 학습자들의 실제 에피소드를 기억해 보게 하고 현대사회에서 신분증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 ② 시청하게 될 내용이 ‘신분증’에 관한 것이며 그 의미가 시간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콘텐츠가 될 것임을 소개한다.

(2) 학습 활동 예고

- ① 그 내용의 서술 구조를  와 같은 모양으로 도식화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구조에 따라 시청해 볼 것을 지시한다.
- ② 자막과 영상을 볼 때 특히 어휘와 어휘의 글자체, 글자의 움직임(무빙 타이포그래피)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한다.

3.2.1.2. 보기 전 단계 (5분)

- (1) 위 자막의 인쇄물을 배부하고 읽게 한다.
- (2) 다양한 글자체의 등장을 눈여겨보게 하고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 (3) 모르는 어휘나 그 의미를 명백하게 알지 못하는 어휘를 표시하도록 한다.
- (4) 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을 이용하여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특히 권위, 특혜, 통제, 관리, 감시 등의 단어와 존재, 분실, 판단, 제시 보증 등의 단어의 뜻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3.2.1.3. 보기 단계 (10분)

- (1) 영상을 시청한다.
- (2) 화면에 시간 차이를 두고 나타나는 자막의 모습에서 추론해 낼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①

< 그림 10 > “신분증을 보여 주십시오” 화면캡처 1



‘나’와 ‘나’를 증명해주는 ‘신분증’이 일치하듯 가까운 상태였지만



현재는 ‘나’와 ‘신분증’이 점점 멀어지면서



사실상 ‘나’와는 분리되어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해지고 가치가 뒤바뀌어 버린 상황에 대한 자막의 움직임이 이해시킨다.

②

< 그림 11 > “신분증을 보여 주십시오” 화면캡처 2



‘신분증’이 ‘나’를 증명하는 보조수단에서



‘나’자신보다 더 우선시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상황, ‘신분증’을 소유할 수 있는 나의 실체보다 ‘신분증’의 ‘제시’가 더 필수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2행의 자막의 위치가 바뀌고 ‘신분증’의 자막 글씨가 작아진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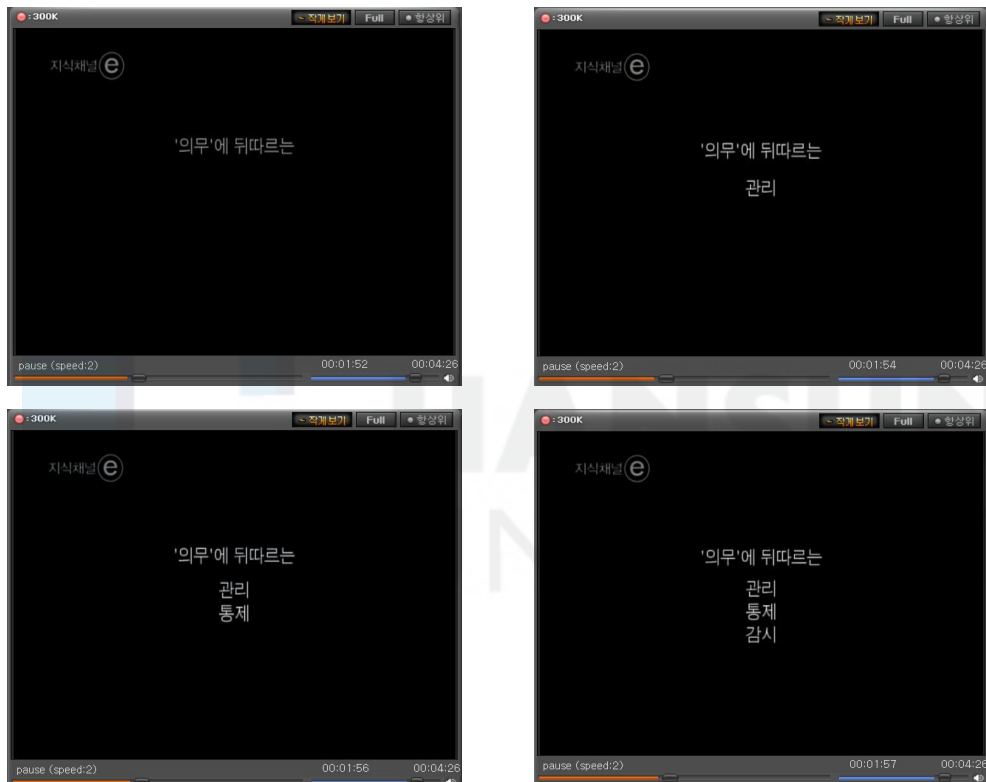
3.2.1.4. 보기 후 단계 (확인 단계) (5분)

자막을 인쇄물로 읽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 했던 부분을 함께 확인한다.

- (1) 영상의 도입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난파 사고를 같은 사건으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지도 한다.

- (2) 오디세우스 이야기는 영상의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그리스 신화의 해당 에피소드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함으로써 어휘의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3) ‘의무’라는 단어 뒤에 효과음과 함께 하나씩 뒤따라 등장하는 ‘관리’, ‘통제’, ‘감시’라는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 번 같이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권위’와 ‘특혜 부여’로부터 변질된 것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 그림 12 > “신분증을 보여 주십시오” 화면캡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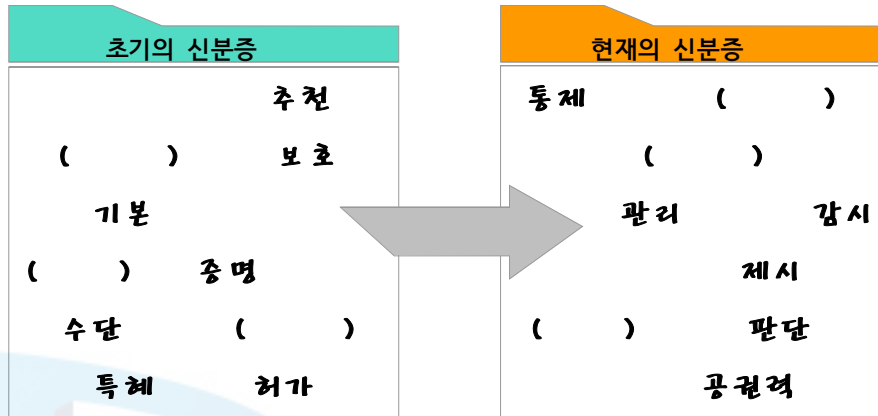
- (4) 내용의 전체적이고 비판적인 이해와 토론이 다음 차시에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3.2.1.5. 다시 보기 단계 (10분)

어휘의 의미와 자막의 무빙 타이포그래피에 집중하며 다시 영상을 보도록 한다.

활동지를 배부 하고 다음과 같이 어휘 지도를 작성해 보도록 한다.

< 그림 13 > “신분증을 보여 주십시오” 어휘 지도 활동지



3.2.2. 갈래형 교수·학습 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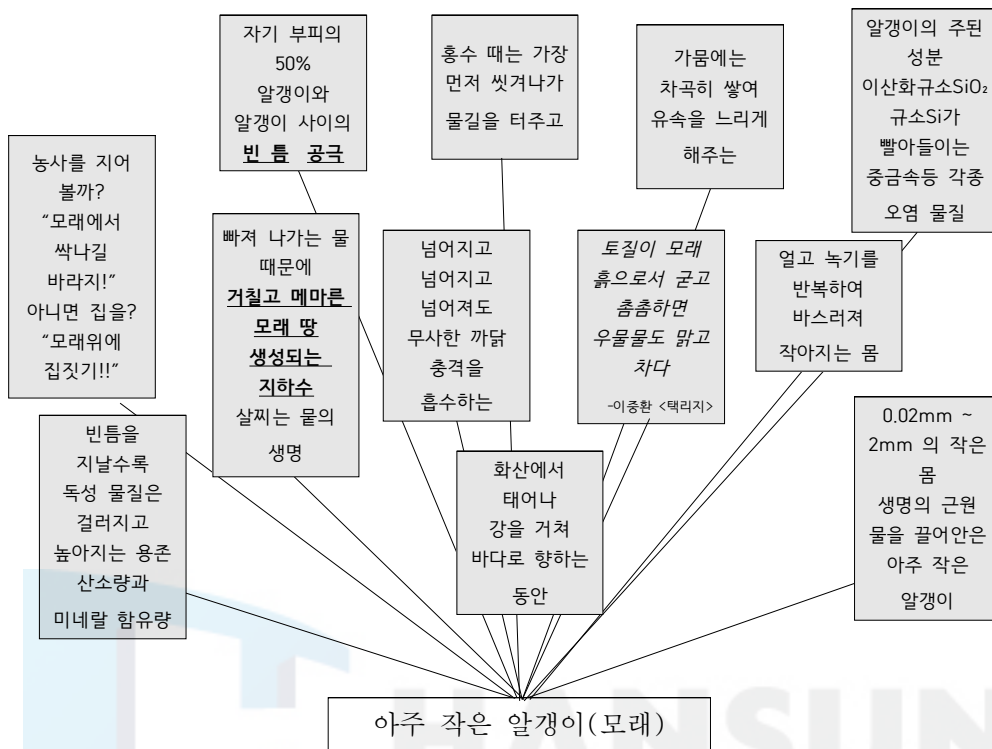
갈래형 서술카테고리의 B구조 콘텐츠 중 “아주 작은 알갱이” (2012.07.13)편의 자막은 다음과 같다.³⁹⁾

39) 실제 자막에 등장하는 각 글자체를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실제 콘텐츠는 http://home.ebs.co.kr/jisike/content_mov_detail.jsp?enc_seq=3113485&command=vod&chk=T&client_id=jisike&menu_seq=1&col=lecture_name&str=아주작은&order=1&order_direct=desc&cate_div=main&&curPage=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농사를 지어 볼까?
 “모래에서 싹 나길 바라지!”
 아니면 집을?
 “모래위에 집짓기!!
 아주 작은 알갱이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져도
 무사한 까닭
 충격을 흡수하는
 자기 부피의 50%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의 빈틈 공극
 빠져 나가는 물 때문에
 거칠고 메마른 모래 땅 생성되는 지하수
 살피는 물의 생명
 알갱이의 주된 성분 이산화규소(SiO_2)
 규소(Si)가 빨아들이는
 중금속등 각종 오염 물질
 빈틈을 지날수록
 독성 물질은 걸러지고
 높아지는 용존 산소량과
 미네랄 함유량
 토질이 모래흙으로서 굳고 촘촘하면
 우물물도 맑고 차다 -이중환 <택리지>
 화산에서 태어나
 강을 거쳐
 바다로 향하는 동안
 열고 녹기를 반복하여
 바스러져 작아지는 몸
 홍수 때는 가장 먼저 씻겨나가
 물길을 터주고
 가뭄에는 차곡히 쌓여
 유속을 느리게 해주는
 0.02mm ~ 2mm의 작은 몸
 생명의 근원 물을 끌어안은
 아주 작은 알갱이
 ()

위 자막의 내용을 어휘 학습을 위한 서술 구조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아주 작은 알갱이”의 서술구조 도식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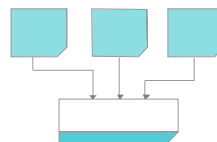
3.2.2.1. 준비 단계 (10분)

(1) 콘텐츠에 대한 간단한 소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존재이지만 인간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알맹이인 ‘무엇’, 그 물질의 본질을 영상을 통해 알아보는 내용임을 알린다.

(2) 학습 활동 예고

① 그 내용의 서술 구조를



와 같은 모양으

40) [표9]의 B구조 도형 참조

로 도식화 할 수 있음을 알리고 활동지를 배부한다.

- ② 활동지에는 어휘를 기록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구조에 따른 해당 어휘를 구분 해 보도록 지시한다.

3.2.2.2. 보기 전 단계 (5분)

- (1) 위 자막의 인쇄물을 배부하고 읽게 한다.
- (2) 모르는 어휘나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어휘를 표시하도록 한다.
- (3) 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을 이용하여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특히 충격, 부피, 흡수, 공극, 생성, 오염, 함유 등의 단어의 뜻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 (4) 인쇄물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에 들어 갈 이 콘텐츠의 키워드가 무엇일지 짐작해보게 한다.

3.2.2.3. 보기 단계 (10분)

- (1) 영상을 시청한다.
- (2) 화면에 시간 차이를 두고 나타나는 자막의 모습에서 추론해 낼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 ① < 그림 14 > “아주 작은 알갱이” 화면캡처 3



“농사를 지어볼까?”



“모래에서 싹 나길 바라지!” 오른쪽에서 등장



“농사를 지어볼까?”가 왼쪽으로 밀려나기 시작



“농사를 지어볼까?”는 왼쪽으로 튕겨나가기 시작



“농사를 지어볼까?”는 왼쪽으로 완전히 튕겨나감

서로 다른 글자체로 두 사람의 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뒤에 나온 자막이 먼저 있던 자막을 튕겨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함으로써 처음의 의견이 터무니없음을 나타내려 했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②

< 그림 15 > “아주 작은 알갱이” 화면캡처 4



자기부피의 50%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의 빈틈



자기부피의 50%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의 ()



자기부피의 50%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의 공극(孔隙)

‘빈틈’이라는 말이 ‘공극’으로 바뀌는 영상에서 보여주는 모래 틈의 모습을 보며 의미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3.2.2.4. 보기 후 단계 (확인 단계) (1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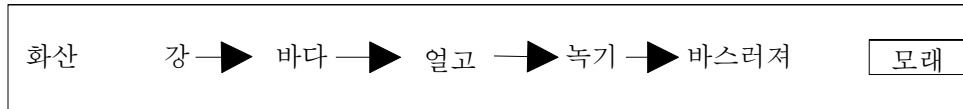
자막을 인쇄물로 읽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함께 확인한다.

- (1) 도입 부분의 대화체 자막은 모래가 집을 짓는 터전이나 농토로 이용되기에 부족하고 사소한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

기 위한 장치였음을 확인시킨다.

(2) 모래의 생성과정을 살펴보고 순서도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표 17] “아주 작은 알갱이”의 내용 순서도



(3) 내용의 전체적이고 비판적인 이해와 토론이 다음 차시에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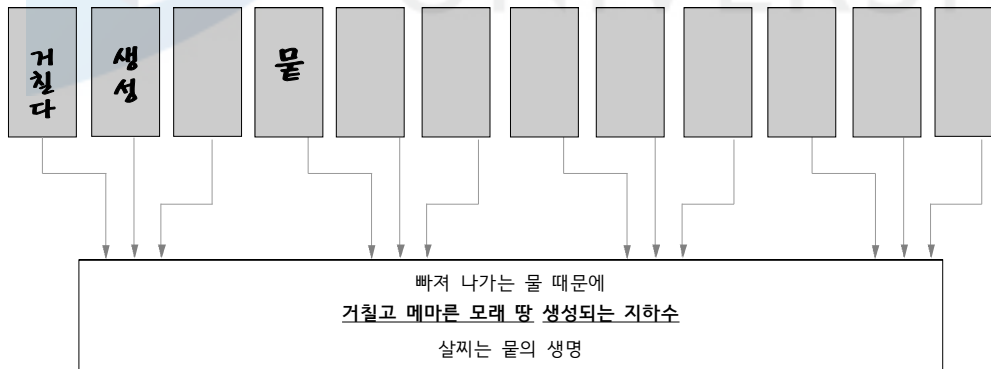
3.2.2.5. 다시 보기 단계 (10분)

(1) 어휘의 의미와 자막의 무빙 타이포그래피에 집중하며 다시 영상을 보도록 한다.

(2) 활동지를 배부 하고 다음과 같이 어휘 지도를 작성해 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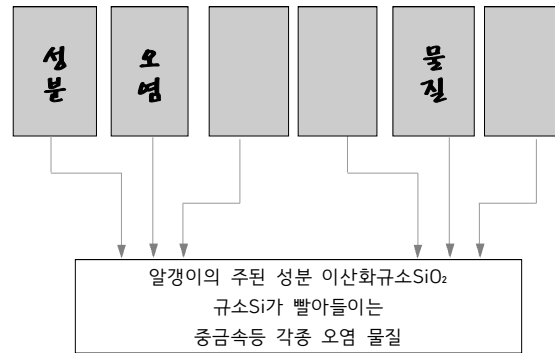
예시①

< 그림 16 > “아주 작은 알갱이” 어휘 지도 활동지 1



예시 ②

< 그림 17 > “아주 작은 알갱이” 어휘 지도 활동지 2



HANSUNG
UNIVERSITY

IV. 결론

최근 여러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음성 대화와는 별도로 제작자의 의도가 개입된 자막이 첨가되어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한다거나, 영상 광고들이 글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변형된 많은 기호와 그림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현재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 학생들도 영상 속의 자막에 다가가기에 익숙한 세대일 가능성이 크고 이를 활용하면 어휘 교육이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작점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어휘를 습득하도록 하는 방안을 위해, 다양한 주제와 구조로 이루어진 ‘지식채널e’라는 콘텐츠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BS ‘지식채널e’는 공영방송인 EBS가 제작, 방영하는 ‘감성 다큐멘터리’를 표방한 영상물로 학습자와 교사들이 접근하기 쉽고 수업 중 반복 시청이 가능한 4~5분가량의 길이로 따로 편집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어 학습용 영상 텍스트로 적절하다. 또한 모국어 화자인 한국인들에게도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어 외국인 학습자들의 사회·문화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다.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어휘교육과 영상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이제까지 방영된 850여 편의 ‘지식채널e’를 9가지 서술구조로 분류하여 한국어 학습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별해 내었다.

무엇보다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던 어휘학습을 위해서는 자막의 독특한 제시법과 서술구조의 명확성, 그리고 학술적 텍스트로서의 적합성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서술 구조에 따라 이야기의 ‘갈래’가 모이거나 분산되는 형식의 ‘갈래형’ 콘텐츠와 인식의 변화나 개념의 ‘확장’을 보여주는 ‘확장형’ 콘텐츠를 활용한 두 가지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아직까지 한국

어 교육에 널리 이용되고 있지 않은 ‘지식채널e’을 학습 자료로 삼아 어휘 교수법을 제안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BS ‘지식채널e’는 한국어 교육에 활용도가 높은 교육 자료로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어휘 지도를 도입한 학문 목적 학술 어휘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어 어휘 교육에 폭넓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성훈(2004), “중국문화교육에서의 영화활용방안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구(2009), “<지식채널 e>의 경쟁력, 자막의 서사전략”, **한국문예비평연구** Vol.32,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김경숙·라혜민(2011),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 뮤직비디오를 이용한 한국어·문화교육 방안 = Culture :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using Music Videos”, *韓國思想과 文化(Korean Thought and Culture)* Vol.59 pp.473-496, 한국사상문화학회(The Society of Korean Thought and Culture)
- 김경애(2011), “토론식 학습법을 원용한 영상 텍스트의 읽기 교육 방안 연구 - 영화『친구』를 예로- = A Study on the Learning Method with Discussion for Reading out Movie Text”, *현대영화연구* Vol.12 pp.91-124,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 김광해(1997), “어휘력과 어휘력의 평가”, *선청어문* 25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 김미소(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고도구어 등급 표준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병조(2011), “타이포그래피 해석의 영상적 구조 = Kinetic structure of Typography Interpretation”,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Vol.9 No.3 pp.37-52, 한국영상학회
- 김선정·허용(1999), “한국어 교재 선택법 및 학습지도안 작성법”, *이중언어학* 16호, 이중언어학회
- 김선진(2011), “TV 시사 다큐프로그램의 제작관행의 변화 연구 - EBS' 지식채널e'의 영상 표현 방법(자막 영상 사운드)을 중심으로”, *디*

- 지털디자인학연구 Vol.32,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 김유미·강현화(2008),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3한 학술 전문 어휘 선정 연구”, *한국어 교육* Vol.19, No.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우(2010), “콘텐츠의 언어표현과 규범 = Expression of language in contents and the norms on contents”, *한국학연구* Vol.33,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Korean Studies Institute KOREA UNIVERSITY)
- 김지영(2004), “한국어 어휘 교육 항목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 교육*, 1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나은미 (2008), “유추를 통한 한국어 어휘 교육 = Korean Vocabulary Education by Means of Analogy”, *한국어학(Korean Linguistics)*, 한국어학회
- 나은미(2010), “한국어 어휘교육을 위한 어휘군 구축-[사람] 어휘를 대상으로”, *우리어문연구* 37집, 우리어문학회
- 박민정(2010), “TV 휴먼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학술대회* Vol.2010 No.1 pp.187-200,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박석준(2010),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 자료 구축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35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박신영(2010),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자극에서 문자와 음악이 수용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 EBS <지식채널②>를 통한 비교 연구“, *한국방송학보(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Vol.24 No.6, 한국방송학회
- 박은희·이수영(2001), “영상자막의 표현양식과 수용자 시청행위”, *방송동향과분석* 제5호 pp.149-169, 한국콘텐츠진흥원
- 방성희(2007), “대학 수학 목적의 한국어 기본 어휘 선정연구 - 인문계열 명사 어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논문
- 손영애(1992), “國語 語彙 指導 方法의 比較 研究 : 漢字 利用 與否를 中心으로 = (The) effects of vocabulary instruction on the reading

- and writing ability development : vocabulary instruction using hanja versus vocabulary instruction non-using hanja”,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동광(2011), “기본 어휘의 선정 기준”-영어 어휘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 연구* 제40집
- 신명선(2006),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의 내용 연구”, *한국어 교육* Vol.17 No.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4), “국어 사고도구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윤경(2010), “한국어 읽기를 위한 어휘의 문화 배경지식 활용”, *한국어교육* 제22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신혜원·김은아·김은영(2006),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의 실제 - 「ENJOY 한국어(韓國語)」를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Teaching Materials using TV Dramas”, *한국어 교육(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17 No.1 pp.265-286, 한국어교육학회
- 양길석(2012), “한국어능력시험 구인 분석 연구”, 국립국제교육원
- 양명희(2010), “고급 한국어 어휘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泮矯語文研究* Vol.29, 반교어문학회
- 유현정(2011),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표현교육 방안 연구 : 다큐멘터리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미(2009), “영상 텍스트 비판적 읽기 지도 연구 - EBS ‘지식채널e’ 읽기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진곤·조은희(2009), “한국TV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경향 연구 - EBS [지식채널e]를 통해 본”, *사회과학논총(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Vol.16,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기연(2009), “통시적 관점의 어휘 교육 가능성 탐색”, *국어교육연구* 제24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 이규정(2007), “TV 다큐멘터리 영상 구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영상

- 재현 방법을 중심으로”, *현대사진영상학회논문집(The Society of Modern Photography & Video)* Vol.10, 현대사진영상학회
- 이도영(2011), “어휘 교육 평가의 이론적 고찰”, *國語教育學研究*, Vol.40, 국어교육학회
- 이영숙(1996), “국어과 지도 대상 어휘의 선정 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김진혁(2009), “지식 저널리즘과 텔레비전 문화 : <지식채널e>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21권 제2호 pp.49-80, KBS 한국방송
- 이유경(2005), “외국인의 대학 수학을 위한 어휘 목록 선정의 필요성 연구”, *이중언어학* 제29호, 이중언어학회
- _____ (2009),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를 위한 이론의 고찰”, *한국어교육* Vol.20 No.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11), “한국어 어휘 의미 교육 등급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동사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47호, 이중언어학회
- 이정민(2010), “한국어 어휘 학습 전략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김영주(2010),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과 언어 능력의 상관관계 연구”,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Vol. 26, 응용언어학회
- 이현화·박승호(2006), “소리, 문자, 움직임의 의미에 관한 실험적 작품연구 :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뮤직비디오 제작을 중심으로”, *인포디자인이슈* 통권 제10호 pp.17-28, 한국인포디자인학회
- 임종수(2007), “EBS 미래 비전과 뉴미디어 전략 : 지식채널 실천 방안”,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7*, 한국방송학회
- _____ (2007), “디지털 시대의 지식 사회학 : EBS <지식채널e> 읽기”, *방송동향과 분석* 제16호 pp.165-176 한국콘텐츠진흥원
- 정용준(2011), “교육방송의 공적 가치와 정체성 비교 분석”, *미디어와 교육* 1권 1호 pp.3-30, 한국방송학회
- 정혜욱(2008), “제 4의 언어양식 연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 조현용(2008),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박이정
- 최민성(2008), “문자의 영상화와 그 문화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Vol.11, 인문콘텐츠학회
- 최은규(2006), “유형별로 본 한국어 능력 평가의 실제와 과제”, *한국어 교육*, Vol.1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하성욱(2007),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어휘력 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 하채현(2011), “문자 텍스트와 영상 텍스트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 Survey about an Understanding of Paper Text and Visual Text”, *한국어문교육* Vol.9 pp.289-313,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 연구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한 선(2007), “영상 매체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 'TV 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Vol.3 No.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한영균(2007), “한국어 어휘 교육과 어휘 통계 정보”, *한국어 교육*, Vol.18 No.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재영 외(2010), *한국어 어휘 교육*, 태학사

2. 국외문헌

- Coxhead, Averil(2000), A new Academic Word List, *TESOL QUARTERLY*, Vol. 34, No.2, Summer 2000
- _____ (2011), The Academic Word List 10 Years On : Research and Teaching Implications, *TESOL QUARTERLY*, Vol. 45, No. 2, June 2011
- Dalton, Bridget · Grisham, Dana L.(2011), “eVoc Strategies: 10 Ways to Use Technology to Build Vocabulary”, *Reading Teacher* Feb 2011, Vol. 64, Issue 5, pp.306-317
- Don, Miller(2011), “ESL reading textbooks vs. university textbooks: Are we giving our students the input they may need?”,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10*, Elsevier
- Guillory, H.G.(1998), “The effects of keyword captions to authentic French video on learner comprehension”, *Calico Journal* Vol. 15, No. 1-3, pp.89-108
- Kasper, Loretta F and Singer, Robert(2001), “Unspoken Content : Silent Film in the ESL Classroom”, *Teaching English in the Two Year College*, ProQuest Education Journals
- Koskinen, P.S., · R.M. Wilson, · L.B. Gambrell(1993), “Captioned video and vocabulary learning : An innovative practice in literacy instruction”, *The Reading Teacher* Vol. 47. No. 1, pp.36-43
- Nation, I. S. P.(1990), *Teaching & Learning Vocabulary*, Heinle & Heinle
- _____. (2006), “How large a vocabulary is needed for reading and listening?”, *Canadian Modern Languages Reviews*
- Thornbury, S.(2002), *How to teach vocabulary*, Essex, England: Pearson Education.
- Tomlinson, B.(2010),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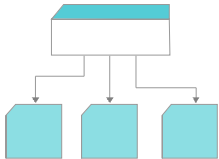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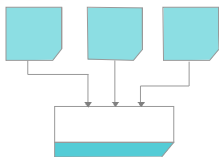
Cambridge Univ. Press

Yun, Jeehwan(2011), “The effects of hypertext glosses on L2 vocabulary acquisition: a meta-analysis”,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Feb 2011, Vol. 24, Issue 1, pp.39-58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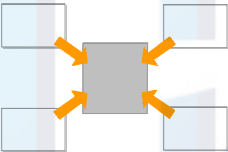
1. 활용 가능한 EBS 지식채널 콘텐츠의 서술구조별 분류 ⁴¹⁾

본론 전개 구조	편수	분류 편
A 	20	1. 먼지 (2011.11.14) 2. 블루 골드 (2008.06.02) 3. 질문들 (2008.10.27) 4. 그들이 열공하는 이유 (2007.07.23) 5. 화인열전 (2006.04.03) 6. 항상 갈망하라 (2011.10.24) 7. 못 배운 과학자 (2010.05.17) 8. 뉴딜 (2008.12.01) 9. 파블로 카잘스의 콘서트 (2007.07.23) 10. 반지하 표류기 (2010.10.11) 11. 그 남자의 권리 (2010.03.22) 12. 환상통 (2009.06.22) 13. 연탄 한 장 (2007.12.31) 14.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법 (2005.10.03) 15. 1의 진화 (2009.06.15) 16. 프로퍼블리카 (2012.01.30) 17. 루퍼트 머독 (2011.08.08) 18. 왕비의 초상화 (2010.11.01) 19. 생애 최고의 게임 (2006.12.18) 20. 보키니 (2008.11.17)
B 	112	1. 사람이 되고저 (2011.03.07) 2. 쿵코드 오류 (2011.09.05) 3. 변화의 조건 (2008.12.01) 4. 구멍 없는 구멍가게 (2007.08.13) 5. 납세자 (2007.07.02) 6. 국부론 1권 제11장 (2007.01.22) 7. 진홍색 침입자 (2006.10.09) 8. 좁은 틈 (2012.05.29) 9. 스파이크 (2012.01.09) 10. 생존기계 (2011.06.06) 11. 우주에서 온 애플파이 (2009.11.02) 12. 120년간의 기준 (2009.06.29) 13. 인류를 지켜온 방탄조끼 (2006.08.07) 14. 하하 호호 길길 깔깔 (2006.07.24) 15. 비둘기의 본능 (2005.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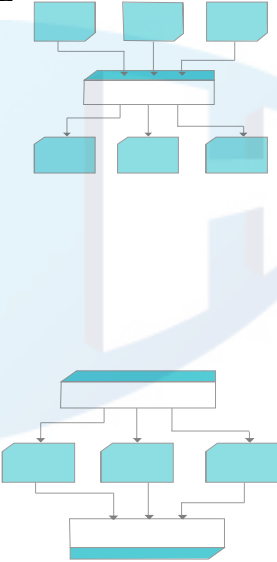
41) 각 편의 나열 순서는 타이틀 분류 순이다.

	16. 무연사회 (2012.07.16)
	17. 어떤 의사들 (2011.06.27)
	18. Working Not Begging (2010.07.12)
	19. 56점짜리 인생 (2007.05.14)
	20. 너랑 나랑 (2007.03.19)
	21. 우는 여자 (2006.12.18)
	22. 접촉 (2006.11.27)
	23. 세계 1위 (2011.06.13)
	24. 우린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2010.09.06)
	25. '박쥐' 날다 (2011.02.21)
	26. 사라진 열흘 (2008.12.29)
	27. 다시 살게 한 한 마디 (2007.12.10)
	28. 자장가 (2007.03.05)
	29. 달러 (2011.10.03)
	30. 돈을 위해 펜을 들다(2010.01.11)
	31. 아, 여행, 여행이여! (2009.08.03)
	32. 초록색 잉크로 쓴 시 (2008.09.01)
	33. 통속소설 (2007.12.24)
	34. 사람의 얼굴 (2006.05.01)
	35. 마지막 비행 (2005.12.26)
	36. 낙엽 (2005.10.10)
	37. 발을 구른다 (2011.11.21)
	38. 무색투명한 정육면체 (2007.02.19)
	39. 놀라운 능력 (2009.11.02)
	40.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음식, 라면 (2007.12.31)
	41. 이름 값 (2007.06.11)
	42. 진실의 순간 (2007.04.09)
	43. 화중유시 (2006.09.04)
	44. 소박한 전설 (2006.08.14)
	45. 2과운드짜리 베스트셀러 (2012.04.02)
	46. 헌법 제1조 (2010.07.12)
	47. 38,841,909명 (2010.05.24)
	48. 어떤 임시직 (2010.01.04)
	49. 문제는 재미다 (2012.03.26)
	50. 젊은이에게 고향 (2011.12.12)
	51. 나는 배우가 아니다 (2011.07.04)
	52. 바보같은 남자 (2011.02.28)
	53. 마에스트로 (2010.10.18)
	54. 감정,노동자 ((2010.08.02)
	55. 훌륭한 시민 (2010.07.05)
	56. 마지막 여행 (2010.03.29)
	57. 조용한 자부심 (2009.08.17)
	58. BLACK (2008.12.22)
	59.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직업 (2008.11.03)
	60. 슬픈 얼굴의 기사 (2008.0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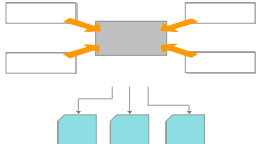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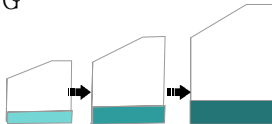
	61. 레판토의 외팔이 (2008.07.21)
	62. 현모양처와 예술가 혹은 그 사이 (2008.03.03)
	63. 대부분이 우울했던 소년 (2008.01.21)
	64. 콜라와 햄버거 그리고 미국의 정신 (2008.01.02)
	65. 어느 뉴욕커의 밤에 관한 보고서(2007.11.19)
	66. 노인과 지렁이 (2007.07.09)
	67. 어느 유머 작가의 행복한 시간 (2006.10.09)
	68. 렘브란트의 모델 (2006.05.15)
	69. 평화의 오아시스 (2011.05.30)
	70. 행복한 불편 (2011.04.25)
	71. 얇은 시장(thin market) (2010.09.27)
	72. 12부 72조 (2010.06.28)
	73. Blood phone (2006.07.13)
	74. 당신이 만약 애완견이라면 (2006.01.02)
	75. 지구의 청소부 (2010.02.08)
	76. 내가 찍은 점(點) (2012.02.13)
	77. 페스트 (2012.07.09)
	78. 인류 최후의 금고 (2010.03.29)
	79. 신의 수 (2012.03.12)
	80. 어떤 설문조사 (2011.11.07)
	81. 피리 부는 사나이 (2009.05.04)
	82. 집으로 돌아가는 길 (2007.04.30)
	83. 웰컴 투 벤포스타 (2006.05.01)
	84. baby sign (2005.09.05)
	85. PR의 아버지 혹은 (2011.08.29)
	86. 화양극장-서울의 마지막 단판 극장 (2007.11.19)
	87. A53a,사라지다 (2010.07.19)
	88. 목소리 (2009.05.18)
	89. 그녀의 이야기 (2011.07.18)
	90. 마지막 30년 (2011.06.27)
	91. 사소함의 힘 (2009.02.02)
	92. 한 권의 책 (2007.12.25)
	93. 단순하게 사는 방법 (2006.10.30)
	94. TV끄기 (2005.09.26)
	95. 아주 작은 알갱이 (2012.07.02)
	96. 완전한 세계 (2012.05.21)
	97. 1평방인치의 고요 (2012.04.16)
	98. 참 혼했던 새 (2011.02.21)
	99. 두루미의 휴게소 (2010.12.27)
	100. 그들도 우리처럼 (2006.08.21)
	101. 나는 2억5천만원입니다 (2005.09.19)
	102. 그 사건 (2011.02.07)
	103. 세잔의 모델 (2010.12.06)
	104. 마녀사냥 (2010.10.11)
	105. 자살특공대의 비밀 (2008.03.17)

		106. 내 텃밭에서 자라는 식물은 무죄 (2008.01.28) 107. 빨간 수목화 (2006.11.20) 108. 기원전 4세기 (2011.04.18) 109. 놀라울 정도로 순진한 작가 (2011.04.11) 110. 교수의 장난감 (2010.04.05) 111. 디자인의 생명은 질서와 변형이다 (2012.04.30) 112. 바로 지금 여기에서 (2011.03.07)
C 	51	1. 당신의 이름은 몇 개 입니까? (2009.05.25) 2. 못 말리는 구두쇠 영감 (2007.04.23) 3. 건축가 정기용 (2012.01.16) 4. 빈 공간 (2007.03.05) 5. 거기, 당신 (2009.07.06) 6. L값 (2009.01.05) 7. 이중 그림 (2011.07.18) 8. 1초 (2005.09.05) 9.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2010.06.21) 10. Oh,My English! (2007.08.06) 11. Thank You (2011.12.05) 12. 한 잔이라도 백 잔인 커피 (2012.02.20) 13. 30주년 (2010.05.17) 14. ₩10,000,000 (2010.01.25) 15. 돈 (2007.01.01) 16. out of use (2009.02.23) 17. 신라 첨성대의 상징성을 아시나요 (2012.06.18) 18. Red (2005.09.05) 19. 경험 그리고 안주인 (2007.02.12) 20. 호기심에 관한 아주 짧은 이야기 (2006.09.18) 21.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 (2012.03.05) 22. 엄마의 취업 (2012.02.06) 23. 1.3cm의 권력 (2007.12.17) 24. 산소의 무게 (2007.03.12) 25. 나의 두 손 (2006.10.23) 26. 늑대들의 합창 (2006.07.14) 27. 꽃의 몰락 (2006.07.03) 28. 정글의 법칙 (2006.03.06) 29. 5분 (2009.01.12) 30. 공영방송 (2010.02.01) 31. 사라진 1억 명 (2011.12.12) 32. 당신의 손이 두 개인 까닭 (2010.02.08) 33. 죽어야 산다 (2009.06.22) 34. 머리카락 (2005.10.10) 35. 남겨진 말 (2011.04.25) 36. 시작행동백서 (2009.08.24) 37. 그들이 달리는 이유 (2009.03.23) 38. 90%를 위한 디자인 (2008.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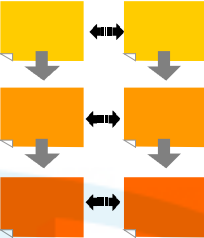
		39. 사람이 사라진 후 (2009.08.10) 40. 완전한 박멸 (2006.07.31) 41. 미니는 어디로 (2006.07.24) 42. 모두 하고 있습니까? (2006.03.27) 43. 인기 직업 (2012.03.12) 44. 인간이 만든 구멍 (2010.05.03) 45. 돈, 얼굴 (2009.03.09) 46. 우주왕복선과 말 엉덩이 (2008.12.15) 47. 그가 코를 만진 이유 (2008.04.07) 48. 난 알아요 (2005.10.17) 49. 이별에 대처하는 너의 자세 (2011.10.10) 50. 그것만이 내 세상(2009.03.16) 51. 네 번째 사과 (2008.12.08)
D 	44	1. 영자 미영 서연이 (2012.05.07) 2. 신분증을 제시해주십시오 (2009.07.13) 3. 녹(綠) (717) 4. 03:46 (2011.03.28) 5. 달의 뒤편으로 간 남자 (2009.11.09) 6. 상상 질병 (2011.10.03) 7. 폰지 씨의 기막힌 돈벌이 (2011.11.28) 8. 최저임금 (2011.05.09) 9. 부자(富者)부자(父子) (2010.10.04) 10. 최고의 자격 (2008.09.08) 11. GDP와 점보제트기 (2007.02.19) 12. 빛의 전쟁 (2009.02.16) 13. 6%가 가진 능력 (2008.10.06) 14. 나의 가장 나중에 지닌 것들 (2008.01.14) 15. 도마뱀의 자리 (2007.10.01) 16. 떨림 (2007.02.19) 17. 비타민의 역습 (2006.03.06) 18. 눈의 착각 (2006.02.06) 19. 우주탐험의 또 다른 역사 (2005.09.05) 20. 군주론 (2010.06.07) 21. 물러설 수 없는 싸움 (2009.08.10) 22. '망각의 의자' (2008.10.13) 23. 마트의 탄생 (2010.11.29) 24. 어머니의 그림 (2009.02.10) 25. 걸려 있는 그림 (2007.01.15) 26. 나 같은 흑인 (2008.06.23) 27. 미국의 우상 (2007.05.07) 28. 2등 전문가 이봉주 (2007.04.16) 29. 변기와 모나리자 (2006.07.19) 30. 제 정신으로 정신병원 들어가기 (2006.11.06) 31. 살찐 간 (2011.03.14) 32. 직선과 곡선 (2008.08.26)

		33. 오일러의 왼쪽 눈 (2008.01.21) 34. 180° 의 진실 (2006.05.15) 35. 노 임팩트 프로젝트 (2011.10.10) 36. 삭스핀 (2011.08.29) 37. 노는 아이들을 찾아서 (2012.05.21) 38. 바다의 요정, 인어 (2007.02.26) 39. 새끼 양과 산책하는 사자 (2008.02.18) 40. 황당한 이야기 (2011.07.25) 41. 한 장의 지도 (2008.06.09) 42. 두 명의 대통령 (2007.10.29) 43.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2007.07.30) 44. 리버트 법칙 (2011.11.14)
E 	80	1. 수잔 발라동 (2010.03.08) 2. 해피엔딩을 꿈꾸며 (2009.07.06) 3. 조용한 싸움 (2009.04.27) 4. 위기에 대처하는 그들의 방법 (2010.03.15) 5. 1년과 하루 (2006.12.25) 6. 과자와 차 (2006.12.18) 7. 오로라는 오로라다 (2006.10.30) 8. 바이러스 (2006.09.11) 9. 루머의 공식 (2010.05.10) 10. 오직 그들만이 알고있다 2007.09.10) 11. 중앙청을 아시나요 (2012.06.04) 12.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2012.03.26) 13. 술 (2006.03.20) 14. 어머니의 고백 (2012.07.16) 15. 이방인 (2007.03.19) 16. 마지막 초상화 (2006.01.16) 17. 괴물전성시대 (2009.11.23) 18. 털 (2009.09.14) 19. 골뱅이의 사생활 (2009.07.20) 20. 소시오패스 (2009.06.08) 21. 위험한 거래 (2009.04.13) 22. 목숨값 (2009.03.23) 23. 얼굴 없는 시선 (2009.01.26) 24. 저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2008.11.24) 25. 세상에서 가장 짬 밥 (2008.10.06) 26. 투명인간 (2008.09.15) 27. 괴벨스의 입 (2008.08.04) 28. 별금인생 (2008.07.14) 29. 공감 무능력자 (2008.04.14) 30. 한 끼 밥 (2008.02.11) 31. 점,占 (2007.10.29) 32. 사라진 씨앗 (2007.10.22) 33.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이유(2007.09.03)

	34. 공포의 학습 (2006.07.31)
	35. 작은 물방울들의 이름 (2009.12.14)
	36. 어떤 곡예사 (2012.04.23)
	37. 공룡 멸종에 관한 101가지 이론 (2009.11.30)
	38. 기적이 일어날 확률 (2008.09.01)
	39. 두 얼굴의 사나이 (2007.09.24)
	40. 왼손에 관한 짧은 진실 (2007.10.08)
	41. 7일간의 기적 (2011.09.26)
	42. 비범한 사람들 (2009.06.01)
	43. Is There a Santa Claus? (2009.12.21)
	44. 크레파스 (2007.04.24)
	45. 이빨이 계속 자라는 건축가 (2010.04.05)
	46.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 (2009.11.09)
	47. 통증, 본능 (2012.05.28)
	48. 현명하게 길을 잃는 방법 (2009.06.08)
	49. 착한 초콜릿 (2008.09.29)
	50. 가장 적합한 자의 생존 (2008.06.23)
	51. '동물실험' (2008.02.11)
	52. 2704 (2008.01.28)
	53. 최고의 진통제 (2008.01.07)
	54. 10,999,960 (2007.10.01)
	55. 검은 실루엣 (2007.09.10)
	56. 나사 그리고 나선 (2007.07.16)
	57. 눈물의 선물 (2007.06.18)
	58. 시간이...왜? (2007.05.07)
	59. 포옹 (2007.03.12)
	60. 신발 (2006.12.04)
	61. 말모이 대작전 (2006.10.09)
	62. 야간 드라마 (2006.09.04)
	63. 여섯 개의 점 (2006.04.10)
	64. 키스의 재해석 (2006.01.30)
	65. 쇼팽의 법칙 (2006.01.23)
	66. Elgin Excuse (2009.11.16)
	67. 지켜지지 않은 유언 (2007.09.24)
	68. 그의 특별한 여행 (2007.07.23)
	69. '별볼일 없던' 외톨이의 대성공 (2007.05.21)
	70. 일주일 3km 다이어트 (2011.10.24)
	71. 납 (2009.12.07)
	72. 의문의 실종 (2009.04.20)
	73.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08.11.24)
	74. 악몽 (2008.09.08)
	75. 사라진 숲 (2007.06.04)
	76. 뜻밖의 선택 (2011.03.21)
	77. 빨강이 초록에게 (2009.12.21)
	78. 플루포비아(flu-phobia) (2009.11.16)

		79. 마이너리티 리포트 (2012.04.30) 80. 새로 고침 (2011.12.26)
F 	34	1. 당신의 물 발자국 (2011.03.21) 2. 커피 한잔의 이야기 (2005.11.07) 3. 우라늄 (2008.05.12) 4. 남들 다 아는 프라이버시, 사생활? (2007.10.08) 5. 나는 고기를 주우러 간다(2009.08.17) 6. Summer of Love (2009.05.18) 7. 몹시 곤란한 동화책 (2010.07.26) 8. 심장의 고동 (2006.06.05) 9. 기타의 전설 (2006.04.24) 10. 소행성 94400 (2012.05.14) 11. 최고의 개혁 (2011.03.28) 12. F-1 (2007.10.08) 13. 유디트 (2007.06.04) 14. 놀이 (2010.05.24) 15. e (2009.08.31) 16. 이그(ig) (2007.11.05) 17. 4분33초 (2007.09.10) 18. 달릴 줄 알지만 달리지 않는다(2011.05.09) 19. 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2010.11.15) 20. 연애박사, 조르주 상드 (2008.02.04) 21. 너무 먹었나봐 (2009.05.11) 22. 귀여워 (2007.04.16) 23. 대박의 주인공 (2012.01.02) 24. Chaebol (2010.11.08) 25. 부당하게 무시당한 물질 (2009.07.27) 26. 당신의 온도는? (2008.08.25) 27. 1:29:300 (2008.06.16) 28. 나에게 잠을 허하라 (2006.04.03) 29. 북극의 나누크 (2006.02.13) 30. 잠 못 드는 밤 (2009.07.13) 31. SPEC UP! (2009.05.04) 32. 눈물의 정의 (2012.03.19) 33. 내 머리 속의 거울 (2011.08.15) 34. 신호 sign (2012.07.09)
G 	60	1. S라인의 탄생 (2012.07.02) 2. 지구가 두꺼운 책이라면 (2011.05.30) 3. 웹, 우웹! (2006.12.18) 4. 우리 집 (2010.01.04) 5. 천사와 악마 (2008.11.03) 6. 4억 년간의 동맹 (2008.02.04) 7. 그들에 대한 몇 가지 오해 (2007.12.10) 8. 시속 0km (2006.05.08) 9. 클럽 그 이상의 클럽 (2012.02.13)

	10. 두 도시를 오간 편지 (2007.12.17)
	11. '위험'한 힘 (2008.12.15)
	12. 두 명의 해커 (2007.04.24)
	13. 나는 로봇... (2005.10.24)
	14.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2008.12.08)
	15. 그걸 바꿔 봐 (2008.09.29)
	16.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2007.08.13)
	17. 입동 무렵 (2010.10.25)
	18. 교수가 되는 길 (2009.09.07)
	19. 텔레비전 (2009.04.06)
	20. 그것은 탱고(tango) (2008.01.14)
	21. 토론의 달인 (2008.08.04)
	22. 조세핀 베이커 (2011.06.20)
	23. 미스터 추 (2010.11.22)
	24. 어느 중퇴생의 꿈 (2010.08.16)
	25. Man of action (2007.08.20)
	26. 소, 닭, 아이 그리고 가족 (2007.02.05)
	27. 메리 시골의 초상화 (2006.08.28)
	28.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2006.06.19)
	29. 그들의 이야기 (2006.04.26)
	30. 나는 달린다 (2006.04.17)
	31. 모차르트의 모차르트, 클라라 하스킬 (2006.02.28)
	32. 벽 속의 구멍 갯단 (2006.11.27)
	33. 피부색 (2006.03.13)
	34. 햄버거 커넥션 (2005.11.28)
	35. 허잡 (2005.09.19)
	36. 아파트 (2009.07.20)
	37. 검은 별 (2011.07.11)
	38. 안녕, 바나나 (2011.03.14)
	39. two jobs, 스피노자의 이유 (2007.11.26)
	40. 0의 진화 (2009.06.29)
	41. 끝없는 3. 14 (2006.07.24)
	42. 파키스탄의 아이, 이크발 (2006.05.01)
	43. 익명의 시민 (2010.09.27)
	44. 삶의 기록자 (2009.03.16)
	45. 초속 20cm (2010.09.20)
	46. 바타와 삼부, 곰보수레와 바트텔거 (2007.07.02)
	47. 산 좋고 물 좋은 곳 (2009.08.24)
	48. 아미시 프로젝트 (2012.02.27)
	49. 가비오파스(2009.02.23)
	50. 줄 위를 걷는 사람 (2008.04.21)
	51. 메시아 (2007.03.19)
	52. 한 부부 (2007.01.08)
	53. 칩코의 여인들 (2009.03.30)
	54. "얼음 위를 걷고 싶어요" (2007.12.17)

		55. 아카시아와 개미 (2006.07.24) 56. And의 이야기 (2006.05.29) 57. 보톡스 (2009.09.14) 58. 왕가리 마타이 (2011.04.04.) 59. 2012 '지식채널e' 시청자UCC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엄마 말 들어 (20152.06.25) 60. 레게, 평화를 꿈꾸다 (2010.01.18.)
H 	25	1. 시나브로 (2007.11.12) 2. 천만년의 여행 (2007.09.03) 3. 8% 이야기 (2006.08.21) 4. 12.7%의 가능성 (2006.06.19) 5. 1년의 시작 (2006.01.02) 6. 오래된 동거 (2011.07.25) 7. 여전히 (2010.02.15) 8. 후원자들 (2009.04.27) 9. Somewhere over the rainbow (2007.09.24) 10. 삼색이와 나 (2006.08.14) 11. 4일 간의 외출 (2005.10.17) 12. 인간의 점수 (2009.04.20) 13. 어떤 작별 (2009.02.16) 14. 눈, 사람 (2007.02.26) 15. 누군가의 얼굴 (2007.10.15) 16. 8 minutes (2006.09.04) 17. 크리스마스 휴전 (2005.12.12) 18. 살아갈 권리 (2009.03.30) 19. 38명의 목격자 (2007.02.12) 20. Zoom out ground (2006.06.26) 21. 어떤 약 (2011.09.19) 22. 느려터진 (2008.02.04) 23. 남겨진 논쟁 (2009.06.01) 24. 딜레마 (2009.09.07) 25. 나는 치어리더 (2011.08.01)
I 	31	1. 살아있는 껍질 (2010.03.01) 2. 하늘 아래 첫 동네 (2012.06.04) 3. 만히 놀도록 하십시오 (2010.07.19) 4. 두 개의 기록 (2006.10.02) 5. 인연 (2007.06.25) 6. 비밀의 향아리 (2007.06.18) 7. 풀밭 같은 인생 (2006.10.02) 8. 히말라야 14좌 (2010.09.13) 9. 아버지의 아들, 찰스 아이브스 (2006.04.17) 10. 챔피언 (2006.03.28) 11. 나는 피카소다 (2006.03.20) 12. 백수의 일기 (2005.11.14) 13. 치매, 기억을 잃다 (2007.07.09)

		14. 희생(犧牲) (2012.01.30) 15. 거룩한 기도 (2011.12.19) 16. 헨리에타 랙스 (2010.03.01) 17. 아이들은 기억해줄까 (2011.09.12) 18. 우리들의 노란들판 (2008.01.28) 19. 프리다 (2007.09.03) 20. Finish Line(2006.10.16) 21. 18cm의 긴 여행 (2005.10.31) 22. 언젠가 너를 만나고 싶었어 (2010.08.30) 23. 나는 울지 못합니다 (2010.07.05) 24. 거위의 꿈 (2007.12.03) 25. 가을날의 사투 (2006.09.11) 26. 0.3%의 모성애 (2006.01.02) 27. 메리안, 변태하다 (2010.05.31) 28. GMO (2011.06.13) 29. 변기 전쟁 (2011.07.11) 30. 누렁이를 위하여 (2011.08.08) 31. 당신의 전성기 (2011.07.04)
계	457	



HANSUNG
UNIVERSITY

2. 『지식e Season 1~7』 텍스트의 사고도구어 목록⁴²⁾

2.1. 『지식e Season 1』 텍스트의 사고도구어 목록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1	%	20	43	상실	1	85	제 18	1
2	세기	2	44	상황	1	86	제기 06	1
3	가능	1	45	생산	3	87	제출	1
4	감소	1	46	선택	4	88	제한	1
5	강제	1	47	설득	1	89	조건	1
6	건설	1	48	설명	1	90	조망	1
7	결과	3	49	설문	1	91	조절	1
8	결정	3	50	성과	1	92	종속	1
9	경험	2	51	성취	1	93	종합	1
10	계획	1	52	소비	3	94	주 27	9
11	과정	1	53	수단	1	95	주변	1
12	관심	5	54	수용	1	96	주체	1
13	교육	2	55	수정 09	1	97	중심	1
14	상승	1	56	시각	3	98	증가	2
15	기간	2	57	시대	1	99	지속	1
16	기대	1	58	시도	2	100	진단	1
17	기록	3	59	실제	1	101	집중	1
18	기법	1	60	실험	2	102	차별	1
19	기술	2	61	억제	1	103	차지	1
20	기억	2	62	언어	1	104	착수	1
21	내면	1	63	역사	4	105	처리	1
22	대표	1	64	완료	1	106	체계	3
23	독립	5	65	외 04	2	107	최고	6
24	동원	1	66	외면	1	108	최대	1
25	등 05	1	67	유의	3	109	최초	1
26	모델	5	68	의사 02	1	110	축적	1
27	무한	2	69	이동	1	111	평균	1
28	문제	1	70	이상 09	3	112	표현	2
29	방지	1	71	이성 08	1	113	프로그램	1
30	법칙	4	72	이해	1	114	필요	3
31	보장	1	73	인정 08	3	115	한계	1
32	보조	1	74	자동	1	116	해당	1

42) 본 연구에서 선별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분석함. [표 5] 참조.

33	보충	1	75	자료	1	117	현상	1
34	보호	1	76	자연	2	118	현장	1
35	복잡	2	77	장애	4	119	확인	1
36	분석	2	78	적용	1	120	획득	1
37	분야	4	79	전면 01	1	121	효과	2
38	비율	1	80	전제 08	1	122	효율	1
39	사고 14	1	81	전체	2	123	후반	1
40	사실	2	82	절 08	1			
41	상대	2	83	점차	1			
42	상승	1	84	정보	1			
전체 등장 횟수					223			



2.2. 『지식e Season 2』 텍스트의 사고도구어 목록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1	%	16	49	발전	1	97	장기 10	1
2	가능	1	50	발표	2	98	재료	2
3	가정 07	1	51	방법	1	99	전문	1
4	감각	1	52	보장	2	100	전체	2
5	강조	1	53	보호	4	101	정상 02	5
6	거부	1	54	본질	1	102	제도	1
7	건설	1	55	부호 03	1	103	조사	1
8	검사	2	56	분석	1	104	조절	1
9	결과	2	57	사고 14	1	105	존재	2
10	경계	1	58	사물	1	106	종류	1
11	경제	2	59	사실	1	107	주 27	4
12	경험	2	60	사회	2	108	중심	2
13	공급	2	61	상상	3	109	중요	1
14	공식	1	62	상실	1	110	증가	3
15	과정	3	63	상징	1	111	중거	1
16	과학	1	64	생산	3	112	증명	1
17	관계	1	65	설명	1	113	지원	2
18	관련	1	66	성격	1	114	직접	1
19	관심	1	67	성공	3	115	진단	1
20	관여	1	68	소비	2	116	진행	2
21	관찰	2	69	수집	1	117	질 08	1
22	구성	1	70	시각 04	1	118	집중	2
23	구역	1	71	시대	2	119	차이	1
24	구현	1	72	시도	2	120	창조	2
25	기대	1	73	시행	1	121	초기	1
26	기록	1	74	실태	1	122	초래	1
27	기법	1	75	실패	5	123	초점	1
28	기술	1	76	실험	4	124	최초	1
29	기억	5	77	심리	4	125	치밀	1
30	기타	1	78	억제	1	126	치열	1
31	기호	1	79	여지	1	127	탐구	1
32	내면	2	80	연구	2	128	통합	1
33	논문	1	81	연합	1	129	평균	3
34	단순	1	82	완전	2	130	표현	2
35	도달	2	83	외 04	2	131	풍부	1
36	드러나다	1	84	요소	1	132	필요	2

37	등장	1	85	운영	1	133	한계	2
38	맥락	1	86	유일	2	134	합성	1
39	모델	12	87	의식 03	5	135	해결	1
40	무시	1	88	이상 09	9	136	해소	1
41	문제	1	89	이성 08	1	137	현대	2
42	물질	1	90	이용	1	138	현상	1
43	등 05	1	91	인정 08	1	139	현장	1
44	미만	1	92	인지	1	140	확인	1
45	반대	2	93	인하다	1	141	회복	1
46	반응	3	94	일시	1	142	효과	1
47	발견	1	95	입력	1	143	효율	1
48	발생	2	96	자극	1			
전체 등장 횟수					254			



2.3. 『지식e Season 3』 텍스트의 사고도구어 목록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1	%	10	37	보유	2	73	이론 01	1
2	가능	2	38	보장	2	74	이상 05	3
3	가상	3	39	보호	3	75	이해	1
4	가정 07	1	40	본질	2	76	인정	1
5	각각	1	41	분석	1	77	일반	1
6	거부	2	42	분야	1	78	자동	1
7	결과	1	43	불과	1	79	잠재	1
8	경제	1	44	사고 14	1	80	재료	1
9	공급	2	45	사물	1	81	적응	1
10	공동	1	46	사상	2	82	전문	1
11	관계	1	47	사회	5	83	전과	1
12	관리	1	48	상승	1	84	절대	3
13	관심	1	49	상황	2	85	정상 02	3
14	관찰	1	50	선택	1	86	정의	1
15	구역	4	51	설문	3	87	제공	1
16	기구	1	52	성공	2	88	조사	1
17	기술	1	53	성장	2	89	조건	1
18	기억	3	54	세기	3	90	주요	1
19	기준	2	55	소비	1	91	주장	1
20	능력	2	56	소유	1	92	중요	3
21	단계	1	57	소재	1	93	증가	1
22	단순	1	58	수행	1	94	지 02	2
23	단절	1	59	실패	1	95	지원 02	2
24	대상	1	60	실험	10	96	지표 03	1
25	대폭	1	61	연결	5	97	직접	1
26	등 05	2	62	연구	2	98	진행	1
27	등장	1	63	예상	1	99	참여	2
28	목표	1	64	예측	1	100	창출	1
29	문제	2	65	외 04	2	101	최고	2
30	반하다	1	66	우려	2	102	최대	1
31	발생	1	67	운영	1	103	최소	1
32	발표	2	68	원칙	3	104	합리	1
33	방법	4	69	유용	1	105	허용	1
34	방식	4	70	유일	1	106	현저	1
35	변경	1	71	의미	2	107	환경	3
36	보급	3	72	의사 02	2	108	획득	1
전체 등장 횟수					191			

2.4. 『지식e Season 4』 텍스트의 사고도구어 목록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1	%	9	53	방식	4	105	이해	2
2	가능	1	54	배열	1	106	일반	1
3	각종	2	55	법칙	1	107	자극	1
4	강력	1	56	변형	3	108	자동	2
5	강의	1	57	변화	4	109	자연	4
6	개념	1	58	보관	1	110	자체	1
7	개발	11	59	보장	1	111	장애	2
8	거부	2	60	보존	1	112	재료	1
9	건설	2	61	보호	1	113	적응	1
10	결과	1	62	부여	1	114	적합	4
11	경로 03	4	63	비판	1	115	전망	1
12	경제	5	64	사고 14	1	116	절실	1
13	경향	1	65	사물	1	117	정답	1
14	공개	1	66	사상 15	3	118	정당	1
15	공급	1	67	사실	3	119	정리	1
16	공동	1	68	사회	6	120	정보	2
17	과학	2	69	사후 03	1	121	제공	2
18	관계	1	70	상관	1	122	제도	1
19	관심	1	71	상상	3	123	제안	2
20	구상	1	72	상승	1	124	조건	1
21	구성	1	73	상위	1	125	조성	1
22	구현	1	74	상호	1	126	존재	1
23	규모	1	75	선택	5	127	주 27	4
24	규범	1	76	선행 01	1	128	주요	1
25	규제	1	77	설계	6	129	주의	1
26	규칙	3	78	설득	1	130	주제 04	3
27	극단	1	79	세기	2	131	증가	1
28	근원	1	80	소비	1	132	증명	1
29	기간	1	81	소통	2	133	지 02	1
30	기구	1	82	수준	1	134	지적	1
31	기대	1	83	시대	4	135	직접	2
32	기본	1	84	실제	1	136	진보	1
33	기술	3	85	심리	2	137	최고	3
34	지원	2	86	언급	1	138	최대	1
35	기존	1	87	역사	2	139	최초	7
36	기준	1	88	연결	1	140	추진	3
37	다양	2	89	완벽	2	141	취하다01	1

38	단순	1	90	완성	1	142	치열	1
39	단절	1	91	운영	1	143	통과	1
40	규모	1	92	원리	2	144	통일	1
41	도구	1	93	원천	1	145	평균	2
42	독립	1	94	위치	1	146	표준	2
43	독창	1	95	유리 05	1	147	필요	7
44	명확	1	96	유사	1	148	하위	1
45	모형	1	97	유일	1	149	현대	1
46	목적	1	98	의미	1	150	현상	1
47	목표	1	99	의식 03	1	151	현실	3
48	무관	1	100	의존	3	152	현장	1
49	문제	1	101	이론 01	1	153	형대	2
50	반대	2	102	이상 05	3	154	확인	2
51	발견	3	103	이성 08	3	155	환경	3
52	방법	1	104	이용	1	156	효율	5
전체 등장 횟수					283			



2.5. 『지식e Season 5』 텍스트의 사고도구어 목록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1	가능	5	46	변화	3	91	이해	2
2	가정 07	1	47	보급	1	92	인위	1
3	간섭	2	48	보장	1	93	인정	2
4	강력	1	49	보호	6	94	인하다	1
5	강제	3	50	부정	1	95	장애	1
6	개발	4	51	분야	1	96	적극	1
7	계입	1	52	사정 07	2	97	적합	1
8	거부	1	53	사회	1	98	절대	2
9	건설	1	54	상상	5	99	정보	1
10	결정	1	55	생산	1	100	정의	1
11	경제	1	56	선택	2	101	제 18	1
12	계획	1	57	설치	1	102	제거	2
13	공급	1	58	성공	2	103	제안	2
14	공기 06	1	59	성과	1	104	제한	1
15	공동	2	60	세분	1	105	존재	1
16	공존	1	61	소극	2	106	주 27	3
17	과정	1	62	소통	1	107	증가	1
18	과학	1	63	수준	1	108	지각 04	1
19	관심	1	64	시대	1	109	지속	1
20	교육	1	65	시도	1	110	지원	5
21	구역	1	66	시스템	2	111	지지	1
22	구조	1	67	실용	1	112	진보	1
23	규칙	1	68	실현	1	113	질서	1
24	근거	1	69	심각	2	114	집중	1
25	긍정	2	70	심리	3	115	차별	1
26	기구	1	71	아이디어	1	116	참여	1
27	기본	3	72	안정	1	117	채택	1
28	기술	4	73	역사	1	118	초점	1
29	기억	1	74	연장 05	2	119	최고	1
30	기준	1	75	여역	1	120	첫	1
31	내면	1	76	운영	1	121	최초	1
32	논문	1	77	원리	1	122	추구	1
33	논쟁	4	78	원칙	1	123	취하다01	1
34	단계	1	79	위대	2	124	판단	1
35	달성	1	80	유래	2	125	표시	1
36	대상	1	81	유일	1	126	필요	3
37	대안	1	82	유지	3	127	현실	4

38	등 05	3	83	의문	1	128	현장	3
39	무시	1	84	의미	1	129	혼란	1
40	물질	2	85	의사 02	1	130	환경	1
41	미만	1	86	의식 03	2	131	확대	1
42	반대	2	87	의지	1	132	회복	1
43	발달	1	88	이동	1	133	효과	1
44	발전	3	89	이론 01	1	134	효율	1
45	범위	1	90	이용	2			
전체 등장 횟수						204		



2.6. 『지식e Season 6』 텍스트의 사고도구어 목록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1	%	8	63	분리	1	125	작용	1
2	가능	4	64	분산	1	126	잠재	1
3	강력	1	65	분야	1	127	장애	3
4	강화	1	66	불과	2	128	적당	2
5	개발	2	67	사실	1	129	적합	2
6	결정	1	68	사태	1	130	전문	1
7	결합	1	69	사회	7	131	전반	1
8	경로	1	70	상대	1	132	전자 03	2
9	경험	2	71	상위	2	133	전체	2
10	공동	3	72	상호	1	134	전파 03	2
11	공식	1	73	상황	8	135	접근	1
12	공유	1	74	생산	1	136	정당 04	2
13	과정	1	75	생성	1	137	정보	1
14	과학	18	76	선택	3	138	정상	4
15	관계	2	77	설계	1	139	정확	2
16	관심	3	78	설명	1	140	제 18	2
17	교육	2	79	설치	1	141	제도	2
18	구조	1	80	성격	1	142	제안	2
19	극복	1	81	성공	1	143	제외	1
20	근거	1	82	성취	1	144	제한	1
21	기간	1	83	세기	1	145	조건	2
22	기대	1	84	소위	1	146	존재	3
23	기록	5	85	소통	3	147	주 27	5
24	기본	1	86	수단	1	148	주요	1
25	기술	3	87	수집	1	149	주의	1
26	기억	3	88	시대	2	150	주체	1
27	내부	1	89	시도	1	151	준비	1
28	내지	1	90	시스템	1	152	중심	2
29	능력	1	91	신뢰	2	153	중요	1
30	다양	1	92	실제	1	154	즉각	1
31	담당	2	93	실패	1	155	지시	1
32	대변 04	1	94	실험	2	156	지원	1
33	대상	1	95	언어	2	157	지적 05	3
34	대표	1	96	역사	4	158	지점	1
35	독자 03	2	97	연구	2	159	지지	2
36	독창	1	98	연속	1	160	직접	1
37	동등	4	99	완벽	2	161	질 08	1

38	동원	1	100	완성	4	162	집중	2
39	동일	1	101	완전	1	163	차별	1
40	등 05	2	102	외 04	1	164	참여	3
41	등장	1	103	요구	2	165	창조	1
42	모델	1	104	운영	1	166	초록 01	2
43	목록	1	105	원칙	1	167	초점	1
44	무한	1	106	위대	4	168	최고	8
45	문제	4	107	위치	1	169	최대	1
46	반대	1	108	유래	1	170	최초	4
47	반복	2	109	유일	5	171	출발	1
48	반하다03	2	110	의도	1	172	취급	1
49	발견	4	111	의미	2	173	탐구	1
50	발달	2	112	의사소통	1	174	통제	2
51	발표	2	113	의지	1	175	특정	1
52	발휘	1	114	이동	1	176	평균	1
53	방법	1	115	이론 01	2	177	필요	5
54	방지	1	116	이면	1	178	한계	1
55	배치	1	117	이상 09	9	179	해결	1
56	변화	2	118	이용	1	180	현상	2
57	변환	1	119	인용	1	181	현실	2
58	보고	1	120	인정	1	182	현장	4
59	보관	5	121	인지	1	183	혼란	4
60	보장	1	122	인하다	1	184	확률	4
61	본질	1	123	자동	3	185	확정	1
62	부합	1	124	자연	6	186	활동	1
			전체 등장 횟수			362		

2.7. 『지식e Season 7』 텍스트의 사고도구어 목록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번호	사고도구어	등장횟수
1	%	40	49	방법	1	97	자연	1
2	가상 05	8	50	방식	1	98	적극	1
3	가능	1	51	변화	2	99	전문	2
4	가정 07	2	52	부수 03	1	100	전체	1
5	개념	1	53	부정	1	101	전환	1
6	개입	2	54	비교	2	102	절대	1
7	거부	1	55	비례	2	103	정당 04	1
8	건설	2	56	사고 14	2	104	정의	1
9	결과	1	57	사실	2	105	제 17	1
10	결합	3	58	사회	5	106	제공	1
11	경제	2	59	상대	2	107	제도	1
12	경험	1	60	상상	1	108	제시	1
13	계획	1	61	상징	1	109	제외	1
14	고정	1	62	상황	3	110	조사	2
15	공동	1	63	생산	1	111	조합	1
16	공식	11	64	선택	1	112	존재	2
17	교육	1	65	설문	2	113	주 27	1
18	구분	2	66	설치	2	114	주변	4
19	구성	1	67	소비	2	115	주제 04	1
20	규정	1	68	소유	1	116	준비	1
21	기술	1	69	소재	1	117	중요	2
22	기구	1	70	수집	1	118	즉각	2
23	기억	1	71	시행	4	119	지 12	2
24	기준	3	72	신뢰	1	120	지원	3
25	내 03	2	73	실제	1	121	지정	1
26	내면	1	74	에너지	1	122	지지	3
27	내부	1	75	여지	1	123	지표 03	1
28	노출	1	76	역사	1	124	직접	2
29	논리	1	77	연구	7	125	질 08	1
30	논하다	1	78	인쇄	1	126	차이	2
31	단순	1	79	영향	1	127	처리	1
32	대상	2	80	완벽	1	128	체계	1
33	대안	1	81	완전	2	129	최고	4
34	대처	1	82	요구	2	130	최초	4
35	도입	2	83	운영	2	131	추가	2
36	동원	1	84	위대	1	132	추진	1
37	동일	1	85	유일	2	133	평균	7

38	등 05	4	86	유지	1	134	포함	1
39	모델	1	87	유한	1	135	표면	1
40	목표	1	88	의문	1	136	표현	2
41	문제	1	89	의존	3	137	필요	1
42	물질	1	90	이상 09	3	138	허용	1
43	미만	1	91	이용	1	139	현실	2
44	반대	4	92	이해	3	140	확대	1
45	반영	1	93	인접	1	141	환경	5
46	반응	1	94	일반	1	142	활발	1
47	발전	1	95	일시	1	143	효율	1
48	발표	2	96	자극	1			
전체 등장 횟수						286		



ABSTRACT

Study on teaching vocabulary
for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with academic purposes
through the visual media
- focusing on EBS Jisik Channel © -

Han, Kookhee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Lexical knowledge is the essential competency in language function and correspondent levels of vocabulary learning are needed on respective purposes of the lear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monstrate teaching plans for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with academic purposes.

In search for a way to efficiently teach academic vocabulary , EBS Jisik Channel© was considered as the working material, which conveys its messages via moving typographic captions without narrations, sound effects and various images.

Chapter II scans the definitions of Lexical knowledge and purposes of vocabulary teaching, examines the subjects of every contents of EBS Jisik Channel© (2009.05~2012.07), and classifies selected 457 contents by depiction structures. Furthermore, Korean Academic Words were searched in the text of EBS Jisik Channel©, and were proved to

occupy over 9% of the vocabulary of its texts, which means Jisik Channel© is one of the proper materials for the Korean learners with the academic purposes. The lists of Korean Academic Words in Jisik Channel© are attached as appendix.

In chapter III, Teaching Plans were presented using the word maps based on 5 stages of vocabulary teaching method through the visual media. The previous 9 structures are divided into 2 categories according to the statement ways, and respective plans are provided for each categories.

